SW 신원이엔지
대표 김 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223-2
TEL:(042) 823-2713
FAX:(042) 823-2714
H·P:010-5455-7591

大田투데이

도안 신도시 18BL 우미 Lynn
단지내 상가, 분양,임대
※문의 042)487-2400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233호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육동일 교수 정치행보 '날개짓'

'지방자치와 국가 · 지역발전론' 저서출간… 정가 '촉각'
"기회 되면, 정치 · 행정 경험 통해 대전발전 선봉에 서겠다"

학계는 물론 정가에서도 지방자치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우는 육동일(사진) 충남대 교수가 최근 '지방자치와 국가 · 지역발전론' 저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민선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국가 및 지역발전 관련 이슈와 지방자치를 통한 발전 전략들을 한데 모았다.

육 교수는 "올해로 민선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째가 된다.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엄청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IMF와 외환위기 등의 경제문제, 북핵문제와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남북간 긴장상태, 그리고 대통령 탄핵, 자살 등의 전대미문의 정치적 환란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육 교수는 "지방자치제는 아직 실망스럽고 우려할 만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비정상적인 지방선거의 제도와 관행,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문제, 여전히 주민들의 신뢰를 못받고 있는 지방의회,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 형식적인 주민참여, 지방정부 자치역량의 미흡 등은 지방자치가 여전히 풀지못하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육 교수는 책 발간 이유에 대해 "지역사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을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를 맡아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키고 여론에 귀를 기울였다"며 "그 성과물의 일환으로 이번에 4번째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돼 ▲제1장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제2장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제3장 지방분권과 자치행정 ▲제4장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제5장 지상좌담회 ▲제6장 지방자치연구 발표 논문을 실었다.

육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틀이 중앙집권적 통체제에서 지방분권적 협력체제로 바뀌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책 출판과 함께 육교수의 향후 정치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육 교수는 지난해 6 · 4지방선거 대전시장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비록 컷오프에 통과되지 못해 시장의 꿈을 접었으나, 최근 육 교수의 풍부한 정치 · 행정력과 커리어가 지역사회에 부각되면서 그의 인물론이 재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향후 내년 총선에 어느 지역구로 출마할 것인가에 다른 후보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당선 무효위기에 몰려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판결여부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대전시장 후보 출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육 교수는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전은 지금 세종시로 인해 인구가 정체돼 있는 상황으로 경제 또한 상상히 어렵다."면서 "영남과 호남에 비해 정치력도 약한 것이 사실이고, 지역성도 희미하다. 대전이 살려면 중앙정치력과 지방행정을 두루 섭렵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육 교수는 "기회가 되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그동안 쌓은 정치 · 행정 경험을 통해 대전발전의 선봉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복 기자

안희정 지사, 평택 故 이병곤 소방령 영결식 헌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7일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열린 평택소방소 포승안전센터 고(故) 이병곤(54) 소방령 영결식에 참석, 헌화하며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충남 청양군 비봉면 출신인 이 소방령은 지난 1990년 3월 소방에 입문해 각종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현장을 누벼왔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일반직 5급까지 확대

보수체계 직무 · 성과중심 개편… 성과 미흡땐 동결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은 대폭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보수가 동결될 전망이다.

또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에 따라서도 보수가 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직적인 보수구조를 개선, 성과중심 인사관리 강화와 연계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우선 인사처는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 온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 · 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 외무직 · 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 · 관리자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다수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과 5급 중 성과책임이 비교적 높은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2017년에는 5급 전체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이 경우 국가 일반직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은 2015년 4.5%에서 2017년 15.4%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인사처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은 대폭 확대해 성과에 따른 보수 격차가 더욱 커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이 고위공무원의 경우 7%로 낮아 동기 부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인사처는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 수준인 15%까지, 과장급의 경우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고공단 실장급(1급)의 경우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의 보수 차이가 현재 1200만원에서 2016년 1800만원까지, 국장급(2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과장급(3급)은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실 · 국장급인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전액 성과연봉으로 전환해 성과에 따라 보수 인상여부가 결정되게 할 방침이다.

이는 추가적인 재원투입 없이 해당직급의 처우개선 재원을 성과급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최하위 성과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보수가 오르지 않는다.

이와 함께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한다.

앞으로는 부처별 주요 국정과제나 핵심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의 경우에는 '중요직무급'을 지급하는 등 업무의 중요도 또는 난이도에 따라 보수도 차등 적용된다.

다만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은 각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밖에 경찰이나 소방 등 대민접점 · 현장업무, 위험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도 예산상황,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인사관리 방향을 장기근무형과 순환근무형 투 트랙으로 구분해 계급이 아닌 직무나 직책을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보수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한편, 최하위직인 일반직 9급의 초임 호봉(1~5호봉)은 기본급을 일부 우대해 인상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올해 말까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주요현안사업 정부예산 4803억 원 확보

아산시, 목표액比 392억원 ↑

아산시가 2016년도 지역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4,803억 원을 최종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연초부터 복기왕 아산시장을 필두로 정부예산확보 T/F팀을 구성해 지역파급효과가 큰 SOC사업 등 주요현안사업 34건을 선정 후 목표액 4410억 원을 확보하고자 국회의원, 중앙부처, 재경향우회 등의 인맥을 총동원해 국비확보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복 시장은 지난 10월 28일 국회를 방문해 본격적인 국회 예산안 처리에 앞서 이명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성호(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권한대행 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박홍근(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홍영표(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등 다수의 여야의원을 접견해 아산시 최우선 과제인 2016전국체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최종 확보한 정부예산을 시행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시행사업 3844억 원, 도 시행사업 200억 원, 자체시행사업 759억 원으로 이는 전년 확보액 2260억 원보다 2543억 원 증가된 것으로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축소기조하에서도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활동으로 거둔 값진 성과이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 분야에 서해선 복선전철 2337억 원, 아산-천안 고속도로건설 800억 원, 국도 43호(음봉-영인-팽성) 569억 원을 확보, 국도대체우회도로(염성-용두) 68억 원, 국지도 70호(선장-염치) 200억 원을 확보해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되고 우리시 주요도로의 교통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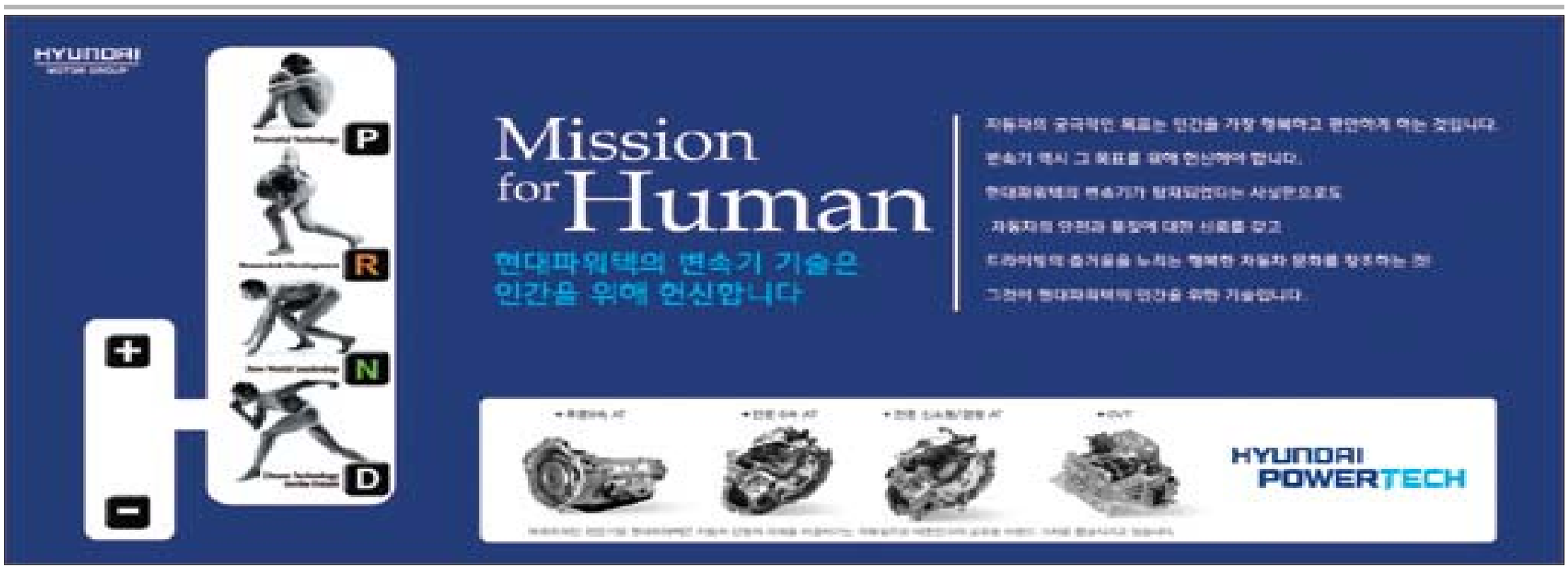
환경분야에는 곡교천(옥정보) 주변생태습지조성 20억 원, 곡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0억 원, 매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0억 원을 반영해 주요하천에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을 마련하게 됐으며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 80억 원, 송악동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3억 원, 염치염성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3억 원, 매곡천지구 · 원도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47억 원을 확보해 공공수질개선과 하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분야에선 아산의 주요성장동력인 아산디스플레이시티 2, 음봉디지털산업단지의 용수공급, 진입도로 개설 등에 285억 원을 확보해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201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순신종합운동장 시설확충, 실내수영장 건립, 종합스포츠센터건립사업에 45억 원을 확보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신규사업으로 의료 · 관광 융복합 라이프 서비스 산업기반 구축사업 5천만 원, 온양천생태하천복원사업 5억 원을 확보해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시장은 "2016년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와 우리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 국비확보활동을 벌여왔다"고 설명하며 "아산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아산, 살기 좋은 아산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 기자



'기후협약' 외교행보 朴 대통령 3주 연속 상승

<리얼미터 조사>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 1주일 전 대비 0.7%p 올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 등 각종 외교행보의 영향으로 3주 연속 상승했고, 한중 FTA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2015년 12월 1주차(11월 30일~12월 4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45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주일 전 대비 0.7%p 오른 47.8%(매우 잘함 18.5%, 잘하는 편 29.3%)로 3주 연속 상승한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7%p 하락한 47.0%(매우 잘못함 31.0%, 잘못하는 편 16.0%)를 기록해, 10월 3주차 이후 7주 만에 처음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오차범위(±1.9%p) 내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구·경북(▲4.4%p)과 경기·인천(▲2.3%p), 20대(▲7.7%p)와 30대(▲3.6%p)를 중심으로 상승했는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정상회의, 유네스코 연설, 체코 방문 등 각종 외교행보에 대한 보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0.8%p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p 증가한 5.2%.

정당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이 1주일 전 대비 0.2%p 오른 42.9%로 4주 연속 상승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0.6%p 오른 26.9%로 지난 2주 동안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반등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격차는 16.0%p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1.1%p 하락한 6.3%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지난주와 동일한 20.5%.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쟁점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주일 전 대비 0.8%p 반등한 20.6%로 다시 20%대를 회복하며 23주 연속 선두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서울(22.3%)과 대구·경북(28.5%), 50대(27.0%)와 60대 이상(38.8%)에서 선두를 지켰으나, 대구·경북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편중 논란과 누리과정 보육예산 논란이 격화되면서 부산·경남·울산(22.5%)에서는 크게 하락하며 문재인 대표(19.3%)에 오차범위(±4.9%p) 내인 3.2%p 차로 선두를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혁신전당대회' 제안을 거부하고 총선준비체제 돌입을 선언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새정치연합 지지층이 큰 폭으로 결집하며 0.8%p 오른 18.6%로 2주 연속 상승, 1위 김무성 대표에 오차범위(±1.9%p) 내인 2.0%p 뒤진 2위를 유지했다. 문 대표의 지지율은 새정치연합 지지층(▲6.1%p), 대전·충청·세종(▲5.9%p)과 서울(▲4.2%p)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광주·전라(▼9.4%p)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표는 대전·충청·세종(23.5%)에서 선두를 유지했고 서울(21.4%)과 부산·경남·울산(19.3%)에서 김무성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20대(24.5%), 30대(29.1%), 40대(25.4%)에서도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주·전라(14.6%)에서는 박원순 시장에 9.7%p 뒤진 2위에 머물렀다.

이번 주간집계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638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전화(50%)와 유선전화(50%) 병행 임의걸기(RDD)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6.1%(전화면접 21.7%, 자동응답 4.7%)였다. 통계보정은 2015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이다. 김정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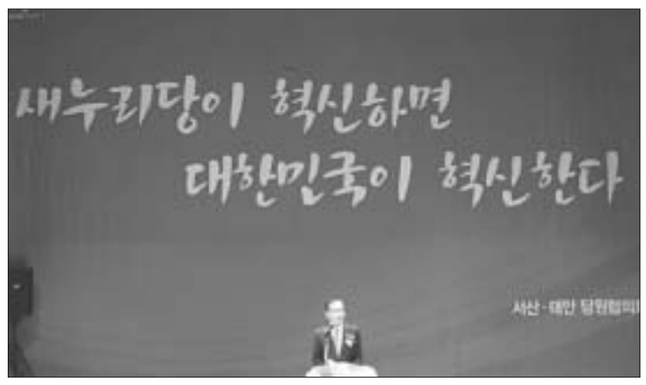
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 NGO 모니터단 "우수 상임위원장" 선정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2015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평가>에서 "우수 상임위원장"에 선정되었다.

'국감NGO모니터단'은 올해에도 1천여 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지방현장까지 포함해 2015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하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했다.

국감NGO모니터단은 "파행의 위기 속에서도 이상민위원장이 인내하고 설득하여 단 한번도 정회없이 국감을 이끌어 타 상임위의 모범이 되어 대표적으로 우수상임위원장으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김제식 의원, 7일 오후 2시 서산문화회관에서

2016년 총선 필승 결의대회 가져

김제식 국회의원(서산·태안, 충남도당위원장)은 7일 오후 2시 서산문화회관에서 당원교육 및 2016년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식전행사로 ▲음악인 정지용씨의 색스폰연주 ▲서산국악협회 회원의 민요공연, 개회 이후 ▲국민의례 ▲내빈소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인제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 황진하 사무총장의 ▲축하영상 메시지 시청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후 ▲주요 당직자 15인에 대한 위촉장 수여 ▲당협위원장 인사말 ▲축사 가 이어지고 ▲국정교과서에 대한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의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문용재 공명선거실천위원장의 인사말 ▲당원대표의 총선결의 ▲결의문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김제식 의원은 "하나로 합쳐진 보수정당으로 처음 치러지는 내년 총선에서 서산·태안의 압도적인 총선결과가 충청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수도권 향우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을 서산태안에서 만들자"며 "서산태안과 새누리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시 함께 뛰어 달라"고 호소했다. 서산=김정한기자

대한결핵협회, 권 시장에게 '크리스마스 씰' 증정

결핵 퇴치사업 기금 조성 위한 모금운동과 관련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7일 오후 4시 시청 10층 응접실에서 결핵 퇴치사업 기금 조성을 위한 모금운동과 관련해 대한결핵협회 대전·충남·세종 지부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 받았다고 밝혔다.

후진국 병으로 인식되는 결핵은 국내 법정감염병 중에서 가장 많은 발생 및 사망자수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환자의 30%는 노인 연령층이며, 전국적으로 매년 2,305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OECD 국가(34개국) 중에서 가장 높다.

대전시도 매년 800여명의 신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 산하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조성된 모금액은 결핵 퇴치 예방 및 홍보·조사 연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에 전액 사용되게 된다.

크리스마스 씰은 1932년 일제 때 캐나다 선교사 셔우드 홀에 의해 최초 시작되고, 1953년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되면서 범국민적인 성금운동으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태선기자

민병주,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사진)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201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로써 민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민 의원은 이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출연연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정년환원 및 출연연의 기타공공기관 제외 필요성을 강조했고 ▲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상 추진 ▲ 충청권 현안인 미래부 조속한 세종시 이전 ▲ 대덕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 모색 촉구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산학협력교육 모델 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안을 제안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휴대전화 통신비 관련, 이통사와 유통점들이 싼 요금제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문제를 지적하여, 지난 10월부터 현장 제도가 개선되고, 고시와 법 개정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이정복기자

세종시 내년 국비확보 처음으로 3,000억 넘겨

이해찬 의원 "세종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

세종시 내년 예산의 국비확보 액수가 3,062억에 이르렀다.

이해찬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예산안에서 국고보조금이 2015년 보다 21.2%가 증가한 536억원이 증액되어 총 3,062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업 확정과 함께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었던 광역 치매센터 설치운영비(5억 7천만원)와 보건환경연구원 설계(2억 1천만원)이 추가되어 세종시 보건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치매센터는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강화를 목적으로 통합 치매예방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전염병 및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이번에 세종시에 처음으로 설립되는 것이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 관련 국비확보예산으로 세종시의 문화적 환경조성에 필수적인 아트센터는 설계비가(22억 4천만원) 반영되어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공정한 선거관리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건립 설계비가(16억원) 반영되어 독립적인 선관위 청사를 갖게 되었다.

또한 행복도시-부강역간 연결도로 83억원, 국립세종중앙수목원 288억원, 충남대학교 세종병원 169억원 등으로 도로 등의 인프라와 수목원 등의 자연환경, 특히 세종시의 취약한 의료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대학병원설립 예산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신규로 3생활권 광역복지 지원센터 건립 65억원, 한솔동의 금강 스포츠공원 조성 10억 5천만원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스포츠 환경을 개선하고, 국립박물관단지 건립비 10억원(총 사업비 약 4,300억원)을 우선 확보함으로써 세종시 박물관단지 조성의 단초를 열게 되었다.

이번 국비 예산확보는 세종시(시장 이춘희)와 행복청(청장 이충재) 그리고 이해찬 의원실의 긴밀한 협조로 기대이상으로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세종=김정환기자

이장우 '한상균 위원장, 스스로 나와 법의 정당한 수사 받아야'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은 스스로 조계사에서 나와 법의 정당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한 위원장을 압박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2차 집회가 끝나면 조계사에서 나가겠다고 스스로 공언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조계사 신도들이 빨리 나가 달라고 요구하고,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두 차례 면담을 통해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면서 "한 위원장은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물론 법원의 체포·구속영장에도 응하지 않고 종교시설로 숨어들어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또 "범법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 또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야 한다. 우리 법 어디에도 범법행위에 대해 특정종교가 나서서 중재하도록 돼있는 조항은 없다."고 법정처리를 요구하며 종교인의 중재를 일축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종교시설은 범죄자가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종교인들과 신도들이 종교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의 이기적인 행태로 다수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장우 대변인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혐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만의 특권을 만들어 법 위에 존재하려는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한 위원장은 지금 당장 조계사에서 나와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한대수기자

아산시 이기애 의원, 아산시 폭넓은 시정현황 꿰뚫어

정례회 기간 중 잘된 점엔 칭찬·미비점엔 제안

아산시의회가 제183회 정례회(11.25~12.11)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기애 산업건설위원장이 본청 실무부서장의 제3회추경 예산과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전 부서에 현장의 잘된 점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의견을제시했다.

주목할 점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과 그 현장을 꿰뚫고 있기에 가능했던 일로 평소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쳤기에 가능한 일로 이기애 위원장의 각 부서에 칭찬과 질책, 제안을 살펴보면, ▲산림녹지과 가로수사업과 전국체전 플라워시티 조성사업, '의원도 모르는 사업현장 있음, 시가지 가로수는 보도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간판재정비를 한 만큼 구간별로 장단점을 파악해 시민들과 소통해 사업추진 필요, 플라워시티조성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대가 필요,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 창출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 강구' ▲건설과 저수지준설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충남도내 저수지는 147개소로 45개소가 준설, 농어촌공사와 연계 및 교류해 농업인이 가뭄 등 시급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실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일부 마을이 아닌 읍면단위가 종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캠핑장 용역, '캠핑장은 영인산에서 중요한 시설, 용역결과 나오면 산건위로 결과 제출하고 용역 결과후 현장을 꼭 방문하겠음',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시설 운영 및 야외수영장 '여름철 직원들의 수고와 운영을 잘하고 있어 칭찬함, 직원 1명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충원은 됐는지, 야외수영장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인 만큼 안전을 위한 시설에는 예산이 꼭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 ▲기업지원과 전국체전 기업제품 홍보물품 제작, '스포츠마케팅은 지자체의 한계가 있음. 관내 기업과 농산물을 연계체계를 구축해 아산시 기업과 농업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모색', 교통행정과 노선개편, 민원이 반복되는 사안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 ▲기업경제과 학교 꿈나무 1사1교 자매결연, '각 학교를 돌아보니 야구부, 펜싱부 등 열악한 환경임, 아산시를 빛낼 꿈나무인데 아쉬움, 자매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해 연결하고 후원하는 역할이 되도록 노력' 등 이기애 산업건설위원장은 아산지역 현황과 시정운영현황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시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속 빈 강정'

김영미 의원, 지역경제활성화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삭감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미 의원(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기업경제과 예산안 심사에서 "공주시가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많은 사업 예산을 삭감 편성했다"면서 "특히 사회적 기업 저소득층 일자리 예산을 7억1천만 원이나 삭감 편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주시는 2016년도 예산안에 산업 중소기업 분야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산업단지 육성 및 운영 지방 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육성지원,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에 예산 대부분을 삭감 편성해 지역경제활성화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어서 김영미 의원은 "지난 시정 질의 당시 산성시장 내 비가림 시설 미설치 구간에 대해 상당수 건물주들이 동의하고 있는바 파악 후 조치를 요구했으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맹정호 의원, 교육경비 제한조치 해당지자체 예산 줄어

충남도 해당 4개 시·군 지난해 154억에서 103억 35% ↓

'지방교육경비 지원 관련 규정'으로 인해 해당 시군이 내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충남도의회 맹정호의원(서산1·교육위)이 2016년 충남교육청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경비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4개 시.군이 지난해 154억8천만원에서 35%인 51억9천만원이 줄어든 10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양군의 경우 기본사업만 지원하고 시설비를 비롯해 방과후학교, 영재교육원 운영 등 지난해 지원했던 11개 사업의 예산을 전혀 편성 못한 채 20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부여군의 경우도 초등원어민영어학교, 명문고 만들기 사업 등 12개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지난해 대비 9억4천만 원이 줄어들었다. 계룡시 또한, 초등원어민영어학교 관련 예산 2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서천군의 경우도 19억 원이 줄어들었다. 다만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무상우유급식비 등은 해당 시군 모두 편성해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맹정호 의원은 "충남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로부터 떠안으며 다른 사업이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내포=이지웅기자

전국 도축장 약 3곳 가운데 1곳 안전관리인증 '부적합'

"위생관리 지속적 관심 · 참여 유도 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전국 128개소 도축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 검역본부, 시 · 도와 합동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운용 상황을 평가한 결과, 전국 도축장 약 3곳 가운데 1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15년 도축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 · 평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28개소 도축장 중 '부적합'이 38개소로 약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도축장의 경우 포유류(소 · 돼지)는 작년 대비 6개소가 증가한 26개소이고, 가금류(닭 · 오리)는 작년 19개소에서 7개소 감소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전년 대비 3개소 늘어난 31개소, 34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위반건수(34건) 중 시설기준 위반이 12건(35%)으로 가장 많았고, HACCP 관리 부적정 8건(24%), 청소상태 불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건(20%),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이 5건(15%), 기타 2건(6%)이다.

이종배 의원은 "우수 도축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 운영자금 지원 및 축산브랜드 평가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적합 도축장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종배의원은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고, 위생관리 소홀업체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정복 기자

K-water, 물산업 미래기술 개발 · 동반성장 워크숍

中企 협력 · 지원 체계 내실화

K-water는 7일 오후 1시 대전 K-water 교육원(대전시 유성대로 1689번길 125) 40주년 기념홀에서 정부, 학계, 대.중소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물산업 미래기술 개발 및 동반성장 워크숍'를 개최한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최승일 고려대 교수(환경시스템공학과)와 최계운 K-water 사장 및 대 · 중소기업 80개사 관계자 등 약 14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부 3.0 정책에 부응해 △물산업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고,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협약체결 △K-water 글로벌 파트너 인증브랜드 사용 협약체결 △동반성장 간담회 △자문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협약'은 K-water가 20억원을 중소기업청 산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며, 출연금은 물산업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우수제품 구매에 사용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연구개발에 재투자되어 기업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water 글로벌 파트너 인증브랜드 사용 협약'은 K-water와 12개 중소기업이 체결한다.

K-water는 현재 파키스탄, 필리핀, 조지아 등 총 11개국에서 14개 사업을 수행 중이며, 인도네시아, 페루, 알제리 등에 스마트 물관리 기술수출을 추진하며 해외에서 높은 인지도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물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및 지원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여 물산업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e편한세상 세종 리버파크' 주말 3만여명 방문

세종시 3-1생활권 유일 빅 브랜드 단지로 수요자 관심집중

대림산업이 세종시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인 'e편한세상 세종 리버파크'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대거 몰리며 분양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지난 12월 4일 문을 연 e편한세상 세종 리버파크 견본주택에는 주말까지 3일간 3만여명이 방문하였다.

홍성해 대림산업 분양소장은 "세종시 3-1생활권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빅 브랜드 프리미엄 단지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우수한 상품설계 등의 장점을 고루 갖춰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단지 내에 휴식, 편의, 쇼핑 등이 가능한 복합 상업시설인 세종 센트럴 애비뉴가 함께 조성돼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3-1생활권 M4블록에 위치한 e편한세상 세종 리버파크는 지하 1층~지상 30층, 13개동, 전용면적 99~145㎡ 총 849가구 규모다. 단지 내 스트리트형 상가인 세종 센트럴 애비뉴는 연면적 약 1만 7,889㎡ 부지에 지상 1~2층, 총 196개 점포로 조성된다.

e편한세상 세종 리버파크 청약접수는 12월 8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12월 8~9일 다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 12월 10일 1순위, 12월 1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발표일은 12월 17일이며, 12월 22~24일 3일간 당첨자계약을 받는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무이자융자가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세종시 대평동 264-1번지에 위치하며, 아파트 입주는 2018년 6월 예정이다.

▲아파트 분양문의: 1899-0706 ▲상업시설 분양문의: 044-864-8122

세종=이정복 기자

올해 3분기 공공조달 전자거래규모 18조 6천억원

전분기 대비 약 10조원 감소…누적 실적 74조 4천억원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지난 3월 개통한 '온통조달'(공공조달통계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올 3분기 전체 공공조달 전자거래 규모가 18조 6,329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3분기 실적 18조 6,329억원은 2분기(28조 5238억원) 및 1분기(27조 2,318억원)에 비해 각각 34.7%, 31.6% 감소했다.

물품, 공사, 일반용역, 기술용역 등 모든 부문에서 1, 2분기에 비해 줄었으며 특히 공사 부문에서 2분기 대비 4.5조원, 1분기 대비 5.5조원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정부재정 조기집행*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3분기 발주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 '15년도 정부재정 집행계획 313.3조원 중 상반기에 60%(188조원), 3분기에는 20.8%(65.2조원)가 집행되었음

'15년 누적실적(1~3분기) 74조 3,885억원을 살펴보면 조달기업의 규모별로 1~3분기 동안 중소기업은 47조 1,108억원(63.3%)을 수주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 실적: 10조 3,284억원(13.9%), 중견기업 실적: 6조 2,286억원(8.4%), 기타(비영리 법인 등) 실적: 6조 3,464억원(8.5%),

수요기관별로 1~3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32.2%인 23조 9,780억원을 발주하였고, 국가기관은 16조 5,433억원(22.2%), 공기업은 15조 6,963억원(2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주한 수요기관은 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3조 551억원)이며, 상위 10개 기관이 총 16조 1,086억원을 조달하여 전체 거래실적의 21.7%를 차지했다.

1~3분기 사회적약자기업(여성 · 장애인 · 사회적 기업)의 공공조달 수주 실적은 5조 568억원*으로 전체 실적의 6.8%으로 나타났다.

박봉관 기자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 '눈앞'

글로벌 특허확보전략필요하다

자동차가 설정된 목적지까지 스스로 운전함으로써 탑승자에게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이른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구글의 구글카는 일반도로 주행실험을 시작한 2010년 이후 6년간 자율주행 모드로 약 195만km를 주행하였고,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그룹을 포함한 자동차 업체들은 자율 주행 차량의 상용화시기를 2020년으로 당기겠다고 앞 다투어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관련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도 한창 진행 중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자율 주행 관련 기술은 2001년 23건의 특허출원이 공개된 이후 2015년에 208건에 이르렀으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1.8%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정보통신 분야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107건, 8.36%), 삼성전자(37건, 2.89%) 및 구글(12건, 0.93%)이 있고, 자동차 분야의 현대자동차(48건, 3.75%), 만도(22건, 1.72%) 및 현대모비스 (19건, 1.48%)가 있으며, 그 외에 국방과학 연구원(67, 5.23%), KAIST (32건, 2.50%) 등이 다출원 순위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출원되는 주요 기술 분야는 센서/지도 기술(43.1%), 주행경로 제어 기술(29.6%), 인터페이스/단말 기술(11.2%), 통신/네트워크/보안 기술(10.6%), 조향/액추에이터 기술(5.5%) 등이다.

특이한 점으로는, 국내 출원인이 글로벌 지식재산권 구축을 위해 PCT 국제특허출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출원의 3.22%에 불과하지만, 유일한 외국기업인 구글은 우리나라에 출원된 12건 모두 PCT 국제특허출원을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스마트 폰의 특허분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기업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특허분쟁을 대비하여 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해야 하고, 더불어 구글의 출원 전략처럼 PCT 국제특허출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글로벌 지식 재산권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자율 주행은 차량의 개념을 단순한 이동 도구에서 새로이 창출되는 생활/사무 공간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점에서 스마트 폰에 이은 21세기의 또 하나의 혁신이 될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혁신 기술의 글로벌 특허전략 수립을 위하여 PCT 국제특허출원과 같은 유용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봉관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동 정●●●

자유학기제 학부모 토크콘서트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8일 오후 3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리는 자유학기제 학부모 토크 콘서트 참석.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한현택 동구청장= 8일 오후 1시 40분 구청 공연장에서 동구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참석.

단재 신채호선생 탄신 헌화식

박용갑 중구청장= 8일 오전 10시 어남동 단재 신채호선생 생가지에서 개최되는 '단재 신채호선생 탄신 135주년기념 헌화식 및 홍보관 개관식' 참석.

화재대비 구청사 소방훈련

장종태 서구청장= 8일 오후 2시, 구청사 광장에서 '동절기 화재대비 구청사 소방훈련' 참석.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

허태정 유성구청장= 8일 오후 3시 구청 행복사랑방에서 열리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 참석.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

박수범 대덕구청장= 8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5년 대덕구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 참석.

중구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중구는 제주도 해비치리조트에서 개최된 보육업무 워크숍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유일하게 '2015년 열린 어린이집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영유아들의 안전과 올바른 인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추진과 함께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특수시책 운영 및 안전간담회 등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평가에서 중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과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 및 간담회, 안전책임관제 운영,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령과 안전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열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학부모에게 개방하고 현장체험 프로그램에 부모를 참여시키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박용갑 청장은 "더욱더 안전하고 투명한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권 시장, "광역철도망 성공 사업주체와 유기적 협력해야"

기업유치 투자촉진 적극지원 지시

권선택 대전시장은 7일 "충청권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 성공의 관건은 사업주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며 시가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 같은 주요 기관과 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시 간부들과 가진 주간업무회의에서 "1단계 사업의 예타 통과는 행정과 정치가 결합한 합작품이자 충청권이 공조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우선 충청권광역철도를 환영하면서도 궁금해 하는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기업유치나 투자촉진 부분에 제도적으로 열악한데 최소한 인근 시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일정한 기준 내에서 지원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기업도우미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희망기업이나 희망공무원을 파악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타지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부 있는데 그 중 아직 이전하지 않은 기업도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말로 기업유출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대해서도 "세종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 지원우대지역에 포함돼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지원우대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당연히 거점지구가 지원우대지역에 포함돼야 한다. 미래부, 산자부 등과 협조해서 포함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권 시장은 퀵 서비스의 일환으로 생계형 지급분야의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권 시장은 최근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에서 호응을 얻은 치어리딩 공연과 관련해 "끼와 재능, 다이내믹한 율동이 어우러져 젊은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차 없는 거리 행사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해 우리시에서 치어리딩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제안했다. 이영호 기자

최나경 세계적 플루티스트 홍보대사 되다

市, 아름다운 선율로 음악전도사 자처… 품격있는 홍보 기대

세계적 플루티스트 최나경씨가 아름다운 선율로 대전을 홍보한다.

대전시는 7일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플루티스트 최나경'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플루티스트 최나경씨는 앞으로 2년 동안 대전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 자긍심 함양을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은 물론 대전을 대표하는 각종 축제·행사에 참여해 대전을 알리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최나경는 "출신지역인 대전시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기쁘고,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대한민국 대전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세계적 명성을 가진 플루티스트 최나경 씨는 대전시민의 영광이자 자부심이라며"며 "대전시를 공식 대표하는 최나경 씨와 함께 첨단과학도시와 문화·예술이 융합하는 고품격의 대전시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홍보대사를 통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 홍보대사 최나경 씨는 대전 출신의 세계적인 플루티스트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협연자 콩쿠르 우승 등 각종 음악대회에서 우승하였고 113년 전통의 비엔나 심포니에 입단한 첫 한국인이자 여성수석 연주자로 활약한 바 있으며, 현재는 솔리스트로서 세계적 명망을 떨치고 있다.

이영호 기자

대전시설公 정부3.0 구현 '우수제안 발표회' 개최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은 7일 공단 본부 중회의실에서 정부3.0 구현을 위한 '우수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우수제안 발표회'는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및 경영효율화 방안, 시민 편의시책 등에 대해 한 해 동안 접수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제안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자리이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총 254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건에 대해 창의력, 실현성, 경제성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2차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결과 '추모공원 개장 봉안대 재활용 방안', '탈수실 내 악취저감 등을 위한 철(Fe) 계통 무기응집제 투입' 등 7건이 예산절감 및 실용성 부분에서 큰 점수를 얻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었으며, 정부3.0 핵심과제 일환으로 공단 내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불필요한 일 버리기」심사도 함께 진행하여 '사규집 가제 폐지' 등 7건의 업무를 개선했다.

김근종 이사장은"앞으로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면서, 국정과제인 정부3.0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유성구, 송년회 대신 지역 어려운 이웃돕기 미담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 펼쳐

유성구 진잠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헌재) 회원 20여명이 송년회 대신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를 펼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유성구 진잠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20여명은 7일 용계동 지역의 어려운 이웃 3가구를 찾아 송년회 소요비용 및 자체 모금을 통해 마련한 연탄 1000장을 직접 배달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송년회 대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송년회를 보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헌재 진잠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의례적인 송년회를 생략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자는 의도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市, 복지시설 녹색 나눔 숲 조성 현황

사업지 관리·활용 최우수상 수상

대전시가 7일 소외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한 '복지시설 녹색 나눔 숲 조성' 사업지에 대한 관리·활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실시한 모니터링은 '09년, '11년, '13년에 복지시설에 조성한 나눔숲 사업지로 전국 263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산림청 녹색사업단 전문평가위원이 서류심사 및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지 유지관리 실태, 활용현황 등을 평가하여 1차로 50개소를 선정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20개소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시는 유성구 신생원을 비롯해 10개소가 모니터링 대상이었으며, 2013년에 실시한 신생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2013년도 녹색자금사업(복지시설 나눔숲 조성분야)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어 더욱 뜻이 깊다.

시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은"이번 녹색 나눔 숲 관리·활용현황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시설관리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추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추진하는 '녹색 나눔 숲' 사업은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각 복지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에서 자체 평가와 검토를 한 후 산림청 녹색사업단으로 공모신청을 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00% 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는 금년 2개소를 포함하여 총 19개소(2,926백만원)에 대하여 녹색 나눔 숲 조성 사업을 실시했다.

이영호 기자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서구는 중소형 유통매장에 위해식품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10개소로 확대 설치했다고 밝혔다.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식품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유통매장 내 계산대에 위해 식품 정보를 연결하여 손님이 구매한 제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위해식품일 경우 '긴급회수 대상 식품'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 불량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서구는 영업주와의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사업의 배경 및 취지 등을 설명하고, 유통업체 4개소에 '위해 식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시범 설치 운영한 결과 소비자와 영업주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서구 관계자는 "올해에는 중소형 유통매장 10개소에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확대 설치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식품 욕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나들가게와 동네슈퍼 등 소규모상점까지 확대 설치 운영하도록 권장하여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손 안 애서' 공모전 수상작품 10일부터 전시

한밭도서관 국민 독서활동 장려

한밭도서관에서는 10일 부터 30일 까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손 안 애서(愛書)'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손 안 애서(愛書)'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국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개발한 독서 권장 브랜드로 '책을 언제나 손 안에 두고 사랑하며 읽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공모전이 매년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대상)을 수상한 '몰입'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힐링 타임', '손 끝 애서(愛書)' 등 26점이 전시된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12월 30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야간 연장하여 오후 10시까지 관람 할 수 있다.

전시회는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밭도서관 자료운영과(☎270-7486)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호 기자

한밭새마을금고 성금 1천만원 기탁

한밭새마을금고(이사장 천순상)는 7일 대전시 서구(구청장 장종태) 다목적실에서 관내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실천과 사회환업사업의 일환으로 지정기탁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1천만원은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나눔 문화를 펼치고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눌 예정이다.

한밭새마을금고 천순상 이사장은 "앞으로도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게 수익의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사랑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밭새마을금고는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관내 노인정에 유류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사랑의 좀도리(쌀기부)행사 등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송병배 기자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8천세대 월동난방비·물품지원

따뜻한겨울나기 지원사업 시행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는 2015년 기획사업 '따뜻한겨울나기 지원사업'으로 대전지역 에너지빈곤층 8천세대에 8억원 규모의 월동난방비 및 월동용품을 지원한다.

지난 4일 오후 3시 동구청에서 성금기탁식이 진행돼 관내 저소득계층 825세대에 전기장판 및 이불을 1335세대는 월동난방비로 지원된다. 송병배 기자

천안시 일반회계 본예산 1조원 시대

올해 당초예산보다 9.4% 증가…일반회계 1조600억원 · 특별회계 3400억원 시의회 승인 요청

천안시는 2016년 예산안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9.4%(1,200억원) 증가한 1조 4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민선6기들어 지방채무 상환(779억원)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와 정부예산 확보(1,961억원)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등 재정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시가 제출한 2016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조600억원으로 9.3%(300억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9.7%(300억원) 증가한 34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평균 징수실적과 2016년도 징수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체 세입규모를 안정적으로 계상하고,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했으며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추진으로 투자의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천안시의 2016년 예산안은 재정절감과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알뜰재정 예산'에 역점을 두고, 사각지대없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균형 중심 예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투자성과예산', 안전생활여건과 성장기반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든든 예산',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가치 중심 예산'을 재정운용 방향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619억원(5.8%)△공공질서 · 안전 147억원(1.4%)△교육 317억원(3.0%)△문화 · 체육 · 관광 785억원(7.4%)△환경보호 670억원(6.3%)△사회복지보건 3785억원(35.7%)△농림축산업 631억원(6.0%)△산업 · 교통 1405(13.3%)△지역개발 660억원(6.2%)△예비비 105억원(1.0%)△기타 1476억원(13.9%) 등으로 계상했다.

2016년도 예산안은 12월 8일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1일 시의회 제189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천안=김정환기자

공주시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16일까지 접수…일반형 28명 · 참여형 32명 등 총 60명 선발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2016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선발인원은 행정업무 보조를 수행할 일반형 28명과 참여형 32명 등 총 60명이며, 참여자격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등록 장애인이다.

근무 분야는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행정도우미나 복지서비스요원으로 배치되며, 참여형 일자리 참여자는 환경도우미,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보조요원 등에 참여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일반형일자리는 1일 8시간(주5일 근무), 월 급여 126만 1000원이며, 복지일자리의 경우주14시간 근무, 월 급여 33만 8,000원이다.

참여 희망자는 증명사진,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 조회 ·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등을 구비해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에 방문,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의 고시 ·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복지지원과과 장애인팀(041-840-8051, 관할 지역 읍 · 면 · 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지원과 장애인팀 임병일 담당은 "신청서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선발 대상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선문대-대한적십자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와 MOU 체결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 사회봉사센터는 7일, 본관6층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강화를 위해 대한적십자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회장 권처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선문대학교와 대한적십자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는 전문적인 봉사네트워크를 상호 공유하고 학생들의 봉사활동과 연계된 인턴십을 개발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게 됐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는 천안시 읍면동별, 기능별 단위봉사회 조직 34개를 가지고 있는 전문봉사기관이다. 올해에는 선문대학교와 함께 외국유학생을 위한 바자회, 독거노인이나 사할린 동포 등을 위하여 칠순, 팔순잔치, 효도사진 찍어드리기와 다문화가정 160여명이 참가한 안동하회마을 문화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권처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대학으로 평가받았고 국제화분야에서 가장 앞서있는 선문대학교와 협약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천안지역 어르신 안심마을을 구축하는데 선문대학교와 손잡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운성 사회봉사센터장은 "1만여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 등 전문봉사인력을 지역사회를 위해 환원하겠다"며 "주 · 산 · 학 글로컬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선문대학교와 대한적십자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맞춤형 봉사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그늘진 곳이 없는 선진복지도시 천안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협약식 경과보고에서 하채수 평화봉사단장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탈북자 등 천안시민 60만명의 총체적인 봉사프로그램을 대한적십자봉사회와 함께 기획, 실시, 평가 한다면 봉사활동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협약배경을 설명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한국조폐공사 5차 주화역사시리즈 발매

고려시대 해동중보 '조선시대 상평통보 중형전' 재현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www.komsco.com)는 우리나라 주화역사시리즈 5차 해동중보(海東重寶), 상평통보 중형전(常平通寶 中刑錢)을 8일부터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이번 시리즈 해동중보와 상평통보 중형전은 각각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화로 이전에 판매됐던 주화역사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제품소재는 순금(999)으로 하고, 실물보다 다소 확대해 제조하되 실물과 최대한 유사하게 재현했다.(지름 33mm, 무게 20g)

한국조폐공사가 가지고 있는 위 · 변조 방지기술인 잠상기법을 적용해 보안성과 품격을 높였다. 판매수량은 제품 종별(해동중보 70개, 상평통보 80개) 한정 판매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했다.

판매가격은 각각 106만7천원(부가세 포함)이며, 주화역사시리즈 신청은 8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 계좌입금으로 하며, 입금후 전화 확인으로 확정된다. 계좌입금 순번대로 낮은 일련번호부터 배부한다.

주화역사시리즈 6차는 고려시대 '삼한통보', 조선시대 '상평통보 당백전' 재현품으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우체국알뜰폰 가입자 30만명 돌파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이승재)은 우체국알뜰폰이 지난 4일자로 전국 가입자가 30만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충청우정청에 따르면 우체국알뜰폰은 '13년 9월 판매를 개시한 이후 월평균 1만2천명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다. 판매 우체국은 226개에서 1300개로 확대됐다.

판매 초기에 1천원대 요금제와 저렴한 피처폰으로 큰 호응을 얻은 우체국알뜰폰은 평균 통신료가 1만1천원 수준이어서 이통사의 3만6천원보다 70%가 저렴해 통신료 부담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하고 우체국창구에서 본인확인 후 접수하는 우체국알뜰폰 O2O(Online to Offline) 신청 서비스를 오픈해 판매채널을 다각화하고 데이터선택요금제를 O2O 전용 상품을 출시, 판매상품을 다양화했다.

우체국알뜰폰 O2O 신청 서비스는 지난 9월 오픈 이후 2757건이 신청돼 1590건(일평균 29건)이 창구에서 접수처리됐다. 20~40대가 전체 이용자의 76.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40대를 제외한 연령층의 84.5%가 대리신청으로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렴한 상품뿐만 아니라 고객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우체국의 역할이 인기비결의 요인이라는 평가다. 올해 4월부터는 USIM칩을 우체국에서 배부해 개통소요기간을 1일 단축시켰고, 또한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기기변경 수요가 발생하자 해당 서비스를 우체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만 가입자와 비교해 30대 이하 가입 점유율이 2% 증가했고 LTE스마트폰의 판매율은 6.2% 증가했다.

이승재 청장은 "앞으로도 고객의견을 반영해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내년도 사용될 벼 정부 보급종 7품종 공급

서천군농업기술센터, 2015년산 벼 정부 보급종 공급 개시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석희성)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한 '2015년산 벼 정부 보급종'을 12월 24일까지 각 읍 · 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천군에 보급되는 보급종은 삼광벼, 새누리, 황금누리, 운광, 동진찰, 대보, 새일미 7품종으로 총 1396톤으로 품종별로는 대보가 35톤으로 가장 많으며, 황금누리 26톤, 새일미 18톤, 새누리 15톤, 삼광 6톤(우선공급 30.6톤 별도), 운광 6톤 그리고 동진찰이 3톤이다.

보급종 가격은(2015년: 3만9960원/20kg) 내년 1월 중에 결정 예정이며, 공급기간은 내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품종특성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041-950-6636)로 문의하면 되며, 벼 보급종에 대한 내용은 각 읍 · 면 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금강CEO포럼 송년회 열려

중국 위해시 문등구 관계자 초청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양찬회)는 7일 오후 6시 계룡스파텔에서 '2015 금강CEO포럼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는 포럼 회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잘 극복하고 상호 공생발전을 위해 회원간 격려와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향후 우리 기업들이 중국 진출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국 위해시 문등구 관계자가 참석해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시 필요한 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송년회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한 ㈜인아트 엄태헌 대표와 ㈜성광유니텍 윤준호 대표가 사회공헌 부문에서 공로패를 받았으며, 활발한 기업활동과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포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한산업사 김삼영 대표가 모범회원 부문에서 공로패를 받았다.

박영철 회장은 "오늘 이 시간은 회원모두가 연말연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고취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철도공단 경원선 월정리역사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통일,화합 염원 담은 태극문양 형상화… 17년 준공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경원선 철도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경원선 월정리역사(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일원) 설계공모 작품심사 결과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대표 김종문) 작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 9월 24일 설계공모 공고를 내고, 11월 27일까지 접수를 받아 외부 9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개했으며, 평가결과 역시 공단 홈페이지(www.kr.or.kr)를 통해 공개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월정리역사 설계공모는 남북간 상호 신뢰구축 등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염원하며 역사 내외부에 남북통일, 유라시아 철도 등을 상징하는 조형성과 예술성이 반영된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 평가했다"며 "당선작은 민족의 소통과 화합의 염원을 상징하는 하나의 태극을 모티브로 역사를 형상화했고 전체 시설물의 조형미 역시 돋보였다"며 평가결과를 밝혔다.

월정리역사는 설계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2017년 준공 예정이다.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비롯한 우수작(1편), 가작(1편) 등 입상작은 철도공단 본사(대전 동구) 1층 로비에서 9일까지 작품전시한다.

송병배기자

(주)톱텍 취약계층 아동 위한 방한복 전달

(주)톱텍(대표이사 이재환)과 (주)톱텍 수탁기업협의회는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5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2015년 가족대축제(주관: 아산시건강가정 · 다문화가족통합센터)를 찾아 아산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물품은 방한복으로 (주)톱텍이 100벌(1천만원 상당), (주)톱텍수탁기업협의회가 50벌(5백만원 상당)을 후원했으며, 후원 물품은 아산시건강가정 · 다문화가족통합센터(센터장: 조삼혁)가 선정한 다문화, 조손, 한부모, 북한이탈가족의 취약계층 아동 150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조삼혁 센터장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의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톱텍은 경북 구미 본사와 충남 아산사업장을 두고 있는 공장자동화 설비 전문업체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역사랑 및 나눔문화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된다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시행 ·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 확대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연내 발효에 대비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농수축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확대한다.

관세청은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FTA 활용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현재 수준의 2.8배~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對)중국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효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假)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준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신속해진다.

가(假)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또, 관세청은 농수축산물이 FTA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FTA 취약산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림청과 협의해 대(對)중국 수출이 기대되는 수산물 및 축산물, 임산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봉관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당진시, 지역사회 나눔숲 준공

녹지환경 개선으로 주민 여가활동 및 힐링공간 마련

당진시가 지난 6월 착공한 복운리 나눔숲(지역사회 나눔숲) 사업을 지난 7일 준공했다.

이번 사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녹지취약지역 생활권 주변에 녹지환경을 개선해 국민 여가활동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다.

송악읍 복운리 1671번지에 조성된 나눔숲은 면적 2만3000㎡에 사업비 7억5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착공해 계수나무, 명자나무 등 수목식재, 산책로 포장, 시설물 설치 등 모든 공정을 마무리 지어 장애유무,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속 녹색공간을 조성했다.

이번 나눔숲 사업으로 무분별한 경작으로 훼손된 외관을 정리해 깔끔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송악IC와 인접해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지역주민 및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aT, 일본 대학캠퍼스에서 한국식품 홍보

현지 도카이 대학교서 김장담그기, 김밥말기 등 한국식품 체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일본 도쿄에 위치한 종합 사립대학인 도카이대학 쇼난캠퍼스에서 한국식품 체험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도카이대학이 매년 개최하는 국제페어와 연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미래의 한국식품 소비자들을 확보하고자 대학캠퍼스를 직접 찾아가 김장담그기, 김밥말기 등 다양한 한국식품 체험행사를 가졌다. 특히, 우리식품 수입업체들과 연계해 약 2500여명의 대학생과 일반인 참가자들에게 고추장 등의 한국식품을 무료로 배포하는 행사도 열렸다.

aT에서는 그동안 일본에서 일반 소비자 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젊은층을 타겟으로 해서 홍보행사를 개최했으며, 일본 내 한국식품 응원단인 얍(YAFF) 회원들과 협력, 운영했다. 얍(YOUNG-AGRI FOOD FELLOWSHIP)은 일본 내 한국농식품 홍보와 저변 확대를 위해 한일간의 문화에 정통한 젊은층의 활력을 활용하고자 금년도에 발족했다. 얍 도쿄지부에서는 약 30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도카이대학은 외국어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국어 코스는 특히 인기가 있어 최근 1년간 한국어 관련 강좌를 수강한 학생만도 연 2천여명이 넘는 수준으로 일본 대학 중 한국어 수강생이 가장 많다. 이번 행사는 도카이대학의 한국어 동아리 회원 및 얍회원이 중심이 되어 개최됐다.

송병배기자

충남도 생활권협의체 공동협약 체결

청양군 포함 충남도 15개 시·군 모두 참여

청양군은 7일 오후 2시 아산시 온양그랜드 호텔에서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권협의체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도내 15개 시장·군수가 참석해 지역발전위원회와 충청남도, 6개 행복생활권으로 묶인 시·군이 공동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는 'HOPE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권사업 발굴·지원 등에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현재 청양군은 인근 공주, 부여와 농어촌생활권을 구성해 2014년에는 '1400년 백제 숨결 따라 한 걸음씩', 2015년에는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 등 2건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선정돼 정부3.0 칸막이 없는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중국에 기술, 일본에 가격마저…한국산업 샌드백 신세"

전경련, 국내 주요 업종별 단체 및 협회 30곳 대상 한·중·일 경쟁력 현황 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국내 주요 업종별 단체 및 협회 30곳을 대상으로 한·중·일 경쟁력 현황 비교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 가격경쟁력이 밀린다고 응답한 단체가 21곳인 가운데, 기술에서도 이미 추월당했거나 3년 이내에 기술을 추월당할 것이라고 응답한 단체도 19곳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쟁 일본기업에 기술적으로 뒤쳐질(13곳)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마저 일본에 비해 유사하거나 열세에 있다고 응답한 단체도 14곳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내 산업이 과거 '중국에는 기술 우위, 일본에는 가격 우위'라는 공식이 깨지고,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잃어가는 '샌드백' 신세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경쟁력 전망에 대해서도 응답단체 24곳 중 22곳이 중국과의 경쟁에 부정적 전망을 하였고, 일본과의 경쟁력 전망에서도 응답단체 20곳 중 13곳이 악화를 예상해, 중·일에 기술과 가격경쟁력 모두에서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 30개 중 20개의 업종별 단체가 '매우 심각하며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다소 심각하나 단기간내 회복가능하다'고 응답한 단체는 7곳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위기 수준이 아니다'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상황'이라고 응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체감하는 수준이 '더 크다'는 답변이 7개, '비슷하다'는 답변이 15개로, 현재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일본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대상 30개 단체 중 15곳이 '기업규제완화'라고 대답했다. 이외에도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감면(11곳)', 'R&D 지원(8곳)' 등이 중국·일본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기업이 성장한계를 돌파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환기자

통계청, 제14회 대학(원)생 논문공모대회 개최

통계청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14회 대학(원)생 논문공모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통계자료 이용 연구의 저변 확대, 통계연구의 관학(官學) 간 교류 증진을 통한 통계연구 분위기 조성 및 우수 논문 발굴 등을 위해 12월 7일부터 응모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응모 대상은 2016년 1월 현재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2016년 석·박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통계자료를 실증적으로 활용한 통계학의 이론이나 응용에 관한 연구 ▲사회·경제통계 분야의 조사·분석기법 등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성과 유용성을 지닌 논문이다.

박봉관기자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으로 우뚝!

2015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가 충남도에서 선정한 2015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올해 농촌지도사업 전반에 관한 성과를 15분야 51항목으로 종합 분석·평가해 최우수, 우수, 장려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청양군농업기술센터는 '청양의 미래, 농업이 희망이다'는 비전으로 첨단미래대응 농업신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농업인 학습단체의 품목별 전문성 강화로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농업의 6차 산업화 기반 및 융·복합 기술보급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했으며 농업인대학, 야간농업경영자과정 등 수요자 중심 전문교육으로 유능한 2040 젊은 영농세대를 육성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 영농 119센터 운영, 맞춤형 토양검정,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다목적육묘장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청양=정상범기자

산림청 '우리 명산 클린 경진대회 시상식'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제3회 우리 명산 클린(Clean) 경진대회 시상식'을 8일 오후 4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지역 명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는 산악단체(지자체)를 시상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1·2차 심사를 통해 산림 내 쓰레기 제거, 등산로 정비, 산불조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평가해 최종 24곳(산악단체 16·지자체 8)이 선정됐다.

박봉관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2016년 시군통합평가 대비 전략 보고회

아산시 10개 분야, 31개 시책, 84개 지표, 171개 세부지표 점검

아산시가 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6년 시군통합평가 대비 실적 향상을 위한 전략 보고회를 갖고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영범 부시장 주재로 국·소장 및 부서장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총 ▲10개 분야 ▲31개 시책 ▲84개 평가지표 ▲171개 지표(190개 세세부지표)에 대한 실적분석 및 향상방안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市는 현재 190개 세부지표 중 165개 사업(86%)이 양호하고, 25개 사업(14%)은 부진 또는 실적 향상을 위한 분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범 부시장은 "평가지표의 실적 향상이 우리 아산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결과"라며, "이러한 결과는 실무자의 관심과 열정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남은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부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최상의 성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금소연, 불경기 보험계약 관리 요령 발표

경기불황, 보험해약 급증…투자형, 저축성, 예정이율 낮은 신상품 順 해약·필수보험은 지켜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경기 불황으로 서민 살림살이가 힘들어져 보험해약이 급증하여 3/4분기 13조원이 넘어서는 등 서민경제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보험계약 관리요령을 발표하면서 가능하면 투자형, 저축성, 예정이율 낮은 신상품 순으로 해약하고, 생계형 필수보험은 유지하고, 감액, 실효후 부활 등 해약 이외의 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보험은 노후나 질병, 사고 등 만일에 대비하여 가입시 목적대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나, 불경기에 적합한 보험계약 관리 요령을 따르는 게 좋다. 만일 해약시에도 보험종류 및 순서에 따라 해약하고, 필수 생계형 보험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 놓는 것이 좋다.

◇ 보장성보다 투자형, 저축성 상품부터 해약하라

부득이 해약을 해야 한다면 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과 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경기침체기에는 투자형 상품은 손실을 입기 쉽고 경기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며 보장성보험은 중도 해약하면 재가입이 어렵고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 예정이율이 낮은 상품부터 해약하라

확정 이율형 고금리 상품인 경우는 시중금리가 변해도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과거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은 저금리시대인 요즈음에도 가입당시의 고금리를 적용함으로 유지를 하는 유리하다.

◇ 과거 상품보다 신상품을 해약하라

과거 상품은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싸다. 보장성의 경우 예정이율이 1% 떨어지면 보험료는 약 15%오르게 된다. 예전의 보험상품은 예정이율이 대부분 7.5% ~ 8.5%로 상당히 높은 이율이므로 해약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저축성이나 연금보험은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은 다시는 절대 가입할 수 가 없으므로 유지하는게 유리하다. 또한, 보험가입에 따른 계약관리비용등 비용 지불이 끝나 유리하다.

◇ 해약보다 실효시킨 후 부활하라

사정이 어려워져 부득이 해지를 고려해야 한다면, 해약하지 말고 실효시킨 후 다시 여유가 생길 때 부활하라. 보험료 감액제도 등 해약을 피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감액제도 : 일부만 해지해 보장수준과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감액한 부 분은 해약 처리해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제도 :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대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방법이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 보험료 만큼을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받은 뒤 해당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하는 방법이다.

◇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은 유지하라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할 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지만 해약시 소득세를 물어야하며 저축성 변액보험인 경우 10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고 보장성 변액보험인 경우 10년 유지시 소득공제혜택이 있어 중도해지 할 경우 세제혜택이 사라진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가입후 10년이 안되었다면 해약을 고려해야 한다.

◇ 필수 생계형 보험은 유지하라

가입한 보험 중 중복되는 보험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해야 되며, 나이가 많은 경우 재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건강이 안 좋은 경우 재가입시 하기가 어렵다. 또한 직업이 위험직종으로 바뀐 경우 가입에 제한이 많고 보험료가 비싸며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으므로 해지시 고려해야 한다. 필수 생계보장상품인 암, 상해보험 등의 경우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암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지하는게 유리하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경제불황으로 인한 보험계약 중도해지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안타깝지만, 불가피하게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해지의 우선 순위를 정해 손해를 최소화하고 보장성 상품 같은 만약을 위한 대비 상품은 가능하면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충남도 '금강비전 실현' 43개 전략 124개 사업 도출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충남도가 지난 2013년 공식 선포한 '금강비전'의 실행할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시됐다.

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공주.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 등 금강유역 6개 시군 주민, 안희정 지사, 노박래 서천군수와 6개 시.군 관계자, 금강비전기획위원회 및 실무조정단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최종보고회는 용역 결과 보고, 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연구원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수행한 용역 최종보고서를 통해 금강비전 5대 목표 실현을 위한 43개 전략, 124개 세부 사업(총 사업비 8710억 원)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강의 가치를 끌어올릴 중장기 실천 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 금강유역 종합관리 및 보전·개발 등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포=이지웅기자

중부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제20회 졸업영화제 개최 올해로 20회를 맞는 '제20회 중부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제20회 졸업영화제 <이십>'가 오는 20일 경기도 일산 주엽 롯데시네마에서 개최된다. 1학년들의 study작품, 2~3학년의 workshop작품, 4학년 졸업생들의 졸업영화. 이렇게 세 가지 콘셉트 이 외에도 오프닝 영상, 메이킹 영상 등의 갖가지 많은 콘셉트가 포함되어 있다.

김영국 대전 고용노동청장, 사회지도층 특별한 보훈공감 김영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난 4일 연말연시를 맞아 논산에 거주하는 김창호 국가유공자를 방문해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이명현)에서 실시하는 사회지도층의 특별한 보훈공감을 실천했다.

내가 만든 꽃꽂이로 더욱 특별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장장 권오엽)은 성탄절을 맞아 교회와 성당의 성전 장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 종교 꽃꽂이 강좌를 실시한다.

공주대 교수회 "총장 직선제 실시해야"

국립 공주대학교 교수회 성명서 발표

국립 공주대학교 교수회(회장 정민걸)는 교육부가 지난 12월 3일의 보도자료와 급조된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건의문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보였다. 며 이에 교육부는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제자리를 찾아 삼권분립의 민주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립 공주대학교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국립대의 입학정원을 6,000명 이상 강제로 감축하여 당장 내년에 6,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수학원으로 가거나 2배 등록금의 사립대로 가게 되었으며, 4학년 재학기간을 고려하면 24,000명 이상이 2배 등록금의 사립대에 다니게 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수만 명의 사립대 입학정원도 함께 강제 감축하도록 만들어 고등학교 졸업자 수의 자연감소보다 훨씬 더 많은 수만 명의 학생이 재수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생 수의 감소를 구실로 교육부가 단행한 대학 입학정원의 강제 감축이 부실비리 사학의 부실대학을 정리하는 방향이 아니라 몇 대1에서 10대1 이상의 입시 경쟁률을 보이는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을 거의 일률적으로 강제 감축함으로써 우수 대학의 입시문이 더욱 좁아져 내년에는 더욱 많은 학생들이 과거보다 열악한 대학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이상한 행정이 부실비리 사학의 정원 미달 사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부실대학을 연명케 하기 위해 국민의 행복지수를 떨어지게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이상한 행정이 일부 교육부 관료가 부실비리 사학이나 학원연합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과 일부 교육부 관료가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가는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 등 "교피아"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이상한 행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비판 기능을 마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의 직선제 선출을 폐기하여 국립대를 지배하고 좌지우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급조된 자문위는 국민의 세금을 재정지원을 무기로 삼아 민의가 반영되는 총장직선제를 무력화해오던 것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급기야는 자문위의 건의문으로 포장하여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의 중요 근간인 총장직선제를 보장한 교육공무원법 조항을 폐기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공표함으로써 교육부는 국회 입법권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 대해 자문위와 함께 건의문을 발표한 교육부가 자문위는 교육부와 무관하다는 황당한 변명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자문위 뒤에 숨어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교육부의 이번 공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적 권위주의 국가로 돌리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총장직선제는 1980년대 독재 정권이 붕괴되면서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바탕으로 도입된 제도적 견제 장치다.

총장직선제는 대학의 자율에서 학자의 양심이 살아 생동하게 함으로써 독재 정권으로 복고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독재에서 벗어난 민주사회의 안전장치의 한 축이다. 이러한 총장직선제의 폐기 시도는, 아니길 바라지만, 민주화가 공고히 되는 것에 대한 독재의 잔존 세력이 벌이는 반발일 수 있어 우려가 된다.

교육부가 구실로 말하는 총장직선제의 폐해는 학칙(법령)으로 규정된 직선제의 총장이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 부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따라서 교육부 자의로 임명하는 총장보다 더 인품과 능력이 뛰어난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다.

교육부 자문위 건의문의 핵심은 교육부와 총장이 자의로 선정할 수 있는 소수 위원의 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부가 자의로 총장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게다가 외부인사가 더욱 쉽게 총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교육부의 의도가 "교피아" 의혹을 더욱 짙게 하는 것이다.

최근 수년에 걸쳐 한국체육대학교, 공주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등 국립대들이 교육부가 강요한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추첨식 로또 간선제로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였으나 교육부가 근거 없이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였다.

장기간 총장이 없는 행정공백기 때문에 이들 국립대의 발전이 저해되어 재학생들과 예비재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부산대학교 고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 강압 폐지로 상징되는 민주사회의 퇴행을 막지 못하는 지성에 대한 자성과 사회에 대한 경고를 위해 의거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지난 10월 교육부는 역시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추천된 2순위 임용후보자를 순천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런 일련의 비정상의 교육부 행태는 이번 자문위 건의문 발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립대를 길들여 국립대에 대한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퇴행케 하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이상한 행정을 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태이다.

이제라도 초중등교육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업무가 축소된 교육부는 조직이기주의를 버리고 삼권분립의 민주 대한민국의 건전한 일원이 되어, 사법부와 국회를 무시하는 독선적 행정을 중단하고 그간의 행태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스스로 축소 구조조정의 혁신을 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며 자유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국립 공주대 교수회는 성명을 천명하며 강력히 요구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대덕구, 지역 맞는 기후 변화 적응대책 마련

대덕구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대덕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온 및 강수량 등 기후변화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대덕구의 평균기온은 현재 약 12.7℃이지만 2050년 14.9℃로 약 2.2℃ 상승될 전망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여 환경개선은 물론 수익창출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수립했다.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생태계, 교육·홍보 7개 분야 13개대책으로 구성되었고, 재난 및 재해 위험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도심지내 생태텃밭 조성지원, 기후적응형 도시개발사업, 도심지내 녹지공간 확대, 기후변화 적응력 우수종 식재사업 등 33개 실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김태선기자

www.daejeontoday.com

겨울철 식중독 예방 위해 지도점검

동구, 10일까지 관내 집단급식 및 위탁급식소 16개 대상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발생원인인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을 오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동절기를 맞아 기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식품안전문화를 선도코자 지도점검을 펼친다고 알렸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식품 사용 및 보관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냉동·냉장시설 정상 작동 ▲조리 직접 종사자 위생모 착용 ▲식재료 적정 검수 및 보관상태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재차 미이행 시는 관계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영호기자

가족 지키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공주소방서, 가족사랑 실천은 1가정 1소화기 1감지기 설치

공주소방서(서장 손정호)는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스스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매월 실시중이다.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2017년 2월 4일까지는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한다.

공주=정상범기자

겨울철 자연재난대비에 총력

천안서북소방서, 대설 한파 등 피해최소화 위해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방상천)는 12월부터 오는 3월 중순까지 대설 한파 등 피해최소화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대비에 한창이다.

올해 겨울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변동 폭이 클 것으로 보여,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한파 등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이에 서북소방서는 비상근체계 및 올 겨울철 폭설·한파·정전 등 재난 긴급대응 대비, 도민 안전 확보 및 응급복구활동을 위한 긴급대응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천안=김정환기자

전국 9개 건축감리협회 불공정 행위에 과징금 12억여원

대전-충남북 등… 건축 감리비 기준가 설정하여 가격 경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사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협회가 정한 감리비 기준가격을 회원들에게 강요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창원 등 9개 지역 건축감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축법상 연 면적이 5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감리자를 따로 둬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9개 지역 건축감리협회는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감리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건축주들이 협회에 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주로부터 직접 감리신청을 받은 후,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를 제외하고 다른 건축사들의 명단을 제시해 이 가운데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대구를 제외한 8개 시 도의 건축감리협회는 감리비를 수령할 이유가 없음에도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대신 수령하고, 회원에게는 협회 운영비 등을 공제한 후에 나머지 감리비를 줬다.

9개 시 도의 건축감리협회는 회원(감리자)이 감리비의 기준가를 설정한 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회원들이 이 기준가를 바탕으로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했다.

협회가 설계 담당 건축사의 감리 업무를 제한하고, 대신 감리비를 수령한 것은 회원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이다.

공정위는 이들 협회에게 법 위반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협회 회원 전체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의 경우, 과거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법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고려,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건축감리협회들이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감리를 함께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건축사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감리비의 기준 가격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박봉관기자

아산署, 서해대교 통제관련 안내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지난 3일. 서해대교 주탑 화재로 인해 서해대교가 양방향 전면 통제됨에 따라 아산지역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 교통소통 근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서해안고속도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아산경찰서 관내로 우회(삽교천방조제~아산만방조제)하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자 서해대교 전면통제시점부터 교통경찰과 가용한 경찰력을 정체지역에 집중 배치해 원활한 교통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리감이 없는 운전자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량 분산을 위한 교통 안내 입간판을 제작·설치했다. 안내 입간판은 지리정보 안내를 위한 지도형 입간판을 6개소, 차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안내 입간판 3개소, 끼어들기 등 정체원인 해소를 위한 계도형 입간판 3개소를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이정덕 경비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원할한 차량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정체지점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현장에 맞는 입간판을 추가 설치해 서해안 고속도로를 우회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호서대학교, 충무병원과 '중환자 간호' 협력

호서대 LINC사업단과 영서의료재단 충무병원 공동 주관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간호학과 학생들과 충무병원 간호사들이 지난달 16일부터 10일간 아산캠퍼스에서 '중환자간호 기본과정'을 교육받고, 4일 천안 충무병원에서 수료식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호서대에서 주최하고 호서대 LINC사업단과 영서의료재단 충무병원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호서대 간호학과 학생 19명, 충무병원 간호사 38명 총 57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중 교육 참여율과 종료 후 평가를 통해 41명이 수료했다.

'중환자간호 기본과정'은 호서대 LINC사업단의 '산업체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중환자 간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영서의료재단 충무병원 간호사 및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교육은 중환자 간호의 이해가 좀 더 필요한 충무병원 간호사 및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직무 능력 향상 및 현장 중심 실무인력 양성을 통한 산·학 교육연계 고도화를 가능하게 했다.

호서대 LINC사업단 이진우 단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기업 실무자와 학생을 연계하는 재직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서산소방서,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 위해

3W-119 신고요령 홍보 앞장 서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가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3W-119신고요령 홍보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심정지환자는 4~6분이 지나면 뇌에 혈액 공급이 끊기면서 뇌손상이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최초 신고인의 119신고와 침착하고 정확한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W-119'는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신고와 행동요령으로 '3W'는 Where = 환자 발생 위치를 정확하게, What = 환자 상태가 어떤지 침착하게, Wait =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구급차를 기다려 주세요'의 약자로 심정지 환자발생 시 신고요령이고, '119'는 ▲1초에 2번 두 손을 겹쳐 손바닥을 가슴 중앙에 대고 ▲일(1)직선이 되도록 팔을 펴서 5cm 이상 깊이로 압박 ▲구(9)급대가 도착할 때까지의 약자로 행동요령을 뜻한다.

서산소방서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는 최초 발견자의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캠페인 및 소방교육 시 3W-119를 적극 홍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알바생 56% "일주 개근하면 주휴수당?"

사업주 37% 야간수당 제대로 지급 안해… 실제 근로기준법 준수 미흡함 많아

알바생의 절반 이상은 주휴수당을 모르고 있으며, 사업주 37%는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실제 근로기준법 준수에 미흡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지난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아르바이트생 1,345명과 사업주 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계약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알바생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 등 이행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 알바생의 경우 밤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된 '야간수당'을 받는 사실을 아는 비율은 672%였으나, 여전히 10명 중 3명(32.8%)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주일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지급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은 사업주의 경우 60.3%로 10명 중 4명이 모르고 있었고, 알바생의 경우에는 44.3%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높은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야간근무의 경우 사업주들의 임금지급 실태를 보면 근로기준법대로 '통상 시급보다 50% 더 계산해서 지급'하는 비율이 629%였으며, '통상시급과 동일하게 지급한다'(24.2%)와 '통상시급보다 많지만 50%를 가산하지 않는다'(12.9%)가 총 37.1%에 이르렀다.

이처럼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이 미흡한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들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이 외에도 ▲시급, ▲휴일, ▲휴게시간,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놓치기 쉽지만 꼭 알아야 할 필수 항목들을 담고 있어, 최저임금 등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눈에 띄는 점은 '알바 근무(고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10점 만점 중 사업주 평균 8점, 근로자 평균 8.1점으로 높은 점수를 줬음에도, 각종 수당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행 실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근로계약서'가 근로환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사항으로, 시급과 근로시간을 비롯해 구직자의 권리인 각종 수당 등을 명시하게 돼 있어 근로 전 꼭 작성, 체크해야 한다"며, "끊이지 않는 부당대우와 소송 등 갑을논란을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근로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적극적으로 확산돼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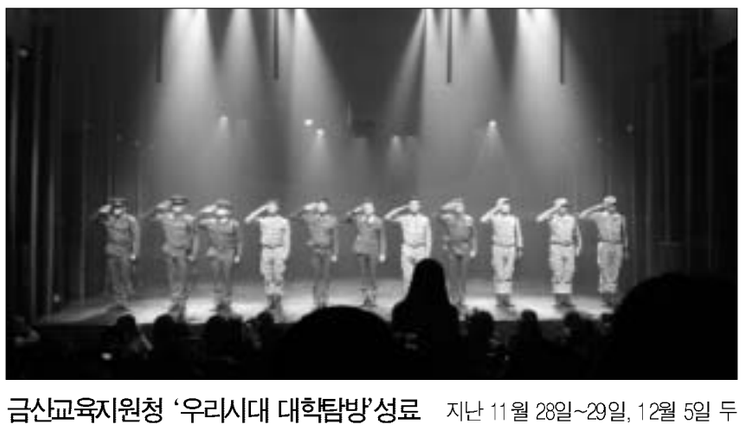
충남교육청 "헌혈! 생명을 나누는 큰 사랑입니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7일 본청 현관 앞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 나눔 헌혈의 날' 행사를 가졌다.

보령교육지원청, 보령Wee센터 꿈틀캠프 출발 지난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 논산KT&G(상상마당)에서 보령관내 초등학생 25명, 중학생 20명 총45명의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진로를 탐색하는 「보령Wee센터 꿈틀캠프」를 운영했다.

아산시, 내 고장 인재육성 프로젝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규)은 지난 5일, 온양풍기초등학교에서 2016학년도 아산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전형 영재성 검사를 실시했다.

논산 부적초, 행복공감 학생공연 및 학부모 특강 지난 4일 상지관에서 행복공감 학생 공연 및 학부모 특강을 실시했다.

아산남성초, 충청남도교내장학 최우수교 표창 '핵심성취기준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목표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 소통을 더하는 교육과정 중심의 컨설팅 및 배움 동아리 운영, 공감을 나누는 활발한 연수 활동 및 명품수업 전개를 통해 학생들이 남다른 꿈과 끼를 키워 성공을 이뤄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실로 교내장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학교 표창의 영광을 차지했다.



금산교육지원청 '우리시대 대학탐방'성료 지난 11월 28일~29일,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센터장 황승영) 주관으로 금산청소년미래센터와 금산문화의집 후원을 받아 금산군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시대 대학탐방'을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2016학년도 대입 정시전략 정보박람회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5년 12월 10일~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광역시청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6학년도 대학입시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시교육청 진로진학T/F팀이 '대입 정시 전략을 위한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대학별 개인별 맞춤형 대면 상담을 하며, 건양대, 공주대, 대전대, 충남대 등 12개 대학이 참여하여 대학별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각 대학별로 입시설명회 및 상담을 실시한다.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4일 이상이지만, 마감일은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으로 인하여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위주의 선발을 한다. 많은 대학들이 수능 100%로 선발하고, 학생부 반영비율도 낮추면서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수능 영역별 가산점과 탐구영역을 제2외국어/한문영역으로 대체하는 등 대학별 전형요소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김정환기자

충남 남부평생학습관, 저경력 공무원 대상 실무능력 향상 연수

충남 남부평생학습관(관장 송용재)은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저경력 교육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능력향상 연수를 운영한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규 및 임용 2년 미만의 교육행정직 20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실무중심 교육이다.

이번 연수는 바른 일처리를 위한 관계 법령의 이해,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에듀파인시스템 활용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원론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교육행정의 여러 유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었다.

「저경력 공무원 실무능력향상 과정은 ▲학교회계 지출 ▲감사사례연구 ▲공사 · 용역 · 물품계약의 이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연수생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공직자 소양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대수기자

세종시교육청, 이주희망자 위한 '세종 교육 통합안내서' 발간

2012년 출범 이후 40개월 연속 인구 순 이동률 전국 1위 기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 이주희망자를 위한 교육정보 안내서인 「세종교육 통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40개월 연속 인구 순 이동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4단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을 고시함에 따라 내년에도 전입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교육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여 전입을 고려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통합안내서 발간을 기획했다.

총 124쪽으로 구성된 이 안내서는 전 · 입학절차, 통학구역지정, 배정업무 등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안들을 통합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만 담아 한 권의 책으로 제작됐다. 또한 전 · 입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의 관심사인 학교별 교복 정보와 방과후 활동 및 동아리현황 등도 안내하여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앞으로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통합안내서를 이전대상 기관인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정부기관에 배포하고 전 · 입학 상담시 활용하도록 전입학원 스톱지원센터와 각급 학교에도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www.sje.go.kr)에도 게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안내서 제작 총괄을 맡은 세종시교육청 이진석 부교육감은 "세종교육 통합안내서가 세종시로 전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정복기자

당진 서야고등학교, 사랑의 연탄배달

축제기간 아이스크림 · 와플 판매수익금 등 연탄 600장 배달

당진 서야고등학교(교장 김인섭)는 지난 4일 두드림 동아리학생들이 합덕지역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3가구에 연탄을 배달했다.

이번 사랑의 연탄배달은 지난 축제기간에 아이스크림 와플을 판매한 금액과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연탄을 600장 구입해 가구당 200장씩 배달을 했으며, 두드림 동아리 15명의 학생과 교장, 학생부장, 담당교사와 함께 해서 더욱 의미를 더했다.

김인섭 교장은 "학생들이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인 모금활동과 연탄배달을 구상했으며, 향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공주 귀산초, 소망공동체 봉사활동 실시

귀산초등학교(교장 김용겸)는 지난 12월 5일 어린이적십자 단원 및 비 단원, 학부모 등 17명으로 구성하여 공주시 상왕동 소재 장애인 단체인 소망공동체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활동내용은 교내 김장담그기 실습에서 학부모들과 직접 담근 김치 6박스를 전달하고, 학생들은 평소 몸이 불편하고 지적장애가 있어 혼자서 활동이 불편했던 장애인들과 짝을 지어 소망공동체 뒷산에 오르며 운동과 말벗도 되어드리고, 김장담그기 일손을 도와드렸다.

5학년 강선주 학생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뜻 깊은 봉사체험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랑과 봉사정신을 잃지 않고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체험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한층 마음이 성숙해지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

공주=정상범기자

연희단 팔산대와 한림디자인고, 전통 연희 인재양성 협약

충북 충주 한림디자인고등학교(교장 임종윤)가 오는 10일 오후 2시 한림디자인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국내 최정상 여성농악단 연희단팔산대(단장 김운태, 이하 팔산대)와 전통 연희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팔산대와 한림디자인고는 이날 상호 연계적인 발전과 미래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창의력 있는 청소년들의 전통 연희 인재양성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에서 한림디자인고 3명이 팔산대 실습단원으로 지원한다.

이날 팔산대는 학교 대강당에서 학생들을 위한 기 · 예능이 종합된 가무악(歌舞樂) 일체의 '멀티플레이어 전통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임종윤 한림디자인고 교장은 "다양한 예능체험 활동을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토의 중심 기호지방 최고의 학교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운태 팔산대 단장은 "전통이란 말만 들어도 식상해하는 청소년들에게 전통은 케케 묵은 것이 아니라 켜켜이 묵힌 것을 실감하게 해주고 인재양성을 통해 전통이 앞으로 가야할 길을 찾고 고민하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연희단팔산대'는 육십대 할머니부터 미취학 꼬마까지 25명의 여성단원으로 구성해 채상소고춤의 명인 김운태 단장이 이끌며 그는 김덕수 · 이광수 등과 함께 활동한 '사물놀이'원년 멤버이다.

송병배기자

충남도 장수업체 성장 발판 마련

일자리 창출 도모, '가업승계기업' 11개 업체 선정… 현판 수여식 가져

충남도는 도내 '가업승계기업' 11개 업체를 선정, 7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

가업승계기업은 소상공인의 사업 노하우를 발굴하고, 장수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안정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충남경제진흥원에 맡겨 추진 중인 '소상공인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처음 선정했다.

도는 가업승계기업을 뽑기 위해 지난 10월 동일 업종으로 20년, 2대 이상 사업을 펼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16개 업체가 응모해 11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업체에는 ▲가업승계 현판 제작 ▲시설 개보수 ▲장비 구입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등을 지원한다.

도는 앞으로도 가업승계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업 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내포=이지웅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창조대상 선정

직원들 사기진작 · 근무의욕 촉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이충재)은 한 해 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2015년도 행복창조대상'을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행복창조대상은 행복청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촉진하기 위해 개청(2006년 1월) 때부터 마련됐다.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행복창조대상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 ·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다.

박한진 주무관(대변인실)은 언론 · 국민과의 상시소통 체계 구축으로 행복도시 홍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윤근 사무관(고객만족지원팀)은 4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및 입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점검단 운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경희 사무관(도시정책과)은 공동주택 건설 관련 생애주기별 품질관리 체계 마련 및 정책 고도화를 위한 민 · 관 협업 기반을 구축한 공로로 수상했다.

성시근 사무관(주택과)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2-2생활권(세종시 새롬동), 2-1생활권(세종시 다정동), 4-1생활권(세종시 반곡동) 등 3년 연속 공동주택 설계공모 시행, 현장협의체를 구축 · 운영한 공로로 선정됐다.

경찬호 사무관(사업관리총괄과)은 건설현장 간 기술경험의 공유를 위한 현장 후원(멘토링) 제도를 통해 공동주택 품질 ·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로다.

홍철 사무관(교통계획과)은 주기적인 교통량 조사 실시, '통학로 안전 특별팀(T/F) 운영' 및 행복도시 내 임시터미널 건립 추진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김우종 행복청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직접 체감하는 유관기관과 국민 등 외부 추천을 받아 업무 공적과 인품 등 모든 면에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직원을 발굴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메르스 ·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 '제로'

예산군, 4년 연속 '감염병관리사업' 도내 우수기관 선정

예산군이 4년 연속 '감염병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다.

7일 군에 따르면 충남도가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메르스와 집단식중독 환자 발생 '제로'와 2014년도 실적 기준 2015년도 합동평가에서 1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군민건강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기관표창을 받는다.

보건소는 그동안 각종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병.의원과 약국, 학교, 산업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11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3군 법정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경로대학과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 총 97회에 걸쳐 1만3143명의 어르신과 주민, 사업 관계자에게 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기존 수암산과, 금오산, 가야산 입구에 설치 운영 중이던 기피제함을 태양광 충전용 자동분사기로 교체했다.

특히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105개 정기검진대상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 및 전화독려를 통해 정기 검진율를 지난해 대비 8%P 증가한 84%로 끌어올렸다.

이 밖에도 보건소 담당자가 1년 동안 진행되는 감염병전문가과정을 1등으로 수료하는 등 지금의 성과는 감염병 예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전문성과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신종 전염병의 창궐 등 감염병 관리의 어려움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예방접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유공자에 감사패

세종시, 박수현 국회의원 · 세종시닷컴 등 7인 수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7일 박수현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확정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수현 국회의원과 세종시 온라인 커뮤니티인 세종시닷컴을 비롯하여 세종시민 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수현 새정연 의원(충남 공주)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회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세종시닷컴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고속도로 건설 촉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시민전체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춘희 시장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앞장서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조속한 착공을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민원 친절 사례 모음집 발간

예산군이 민원 친절 사례 모음집인 '군민을 보듬는 따뜻한 이야기'를 제작했다.

7일 군에 따르면 모음집은 각종 민원처리와 관련한 친절 사례를 발굴 유사민원시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지난 3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40명의 공직자로부터 접수받은 42건과 타 기관 12건 등 총 54건의 사례가 수록돼 있다.

군은 모음집 300부를 제작 전 부서에 배부하고 군청과 읍.면 민원부서에 비치해 공직자 모두가 친절 사례를 공유하고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민원인을 배려하고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섬김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군과 민생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민원 모니터 요원들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공직자 스스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3회 세종시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 '성료'

기부문화 확산 · 나눔 교육 일환

지난 5일 조치원 고려대캠퍼스 농심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10개 지역아동센터가 제 3회 세종시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를 개최 했다.

후원과 봉사상으로 정철(국책연구원)과 안병옥(파리바게트세종부강점), 사회공헌 단체상으로 고용노동부봉사단, 세종천연가스발전소가 상을 받게 되었다. 식전 행사에 최교진(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장승업(세종특별자치시 부의장), 김정봉(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이태환(세종특별자치시 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찾아 와 격려와 축하를 해주었고 식후 행사에도 끝까지 자리에 남아 무대 위의 아이들을 응원했다.

이날 (사)전지협 세종특별시지부에서는 세종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특별한 행사를 추진했다. 약 250여명의 아동과 학부모, 그리고 종사자가 작은 정성을 모아 모금함에 직접 준비한 작은 기금을 기부하였다.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이번 공동 행사를 통해서 공동으로 모금을 이어가는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강경숙((사)전지협 세종특별시지부장)은 "아이들과 함께 직접 모금함에 기부함으로써 사회복지 시설이 도움만 받는 곳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작은 것부터 나누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 기부문화의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고 했다. 또한 금번 행사에 대해서 "세종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아이들을 위해 더욱 더 섬기는 사회복지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고 밝혔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식전 행사를 비롯해 팬플룻, 하모니카, 우쿨렐레, 오카리나, 기타 등 다양한 악기연주가 이어졌고, 방송댄스, 라틴댄스, 벨리댄스, 수화, 우슈, 블랙라이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이날 참석한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부르는 합창 소리로 마지막 순서의 대미를 장식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이춘희 시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하고 전문전인 프로그램비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 매년 하계 연합캠프, 환경개보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사)전지협 세종특별자치시지부는 세종시 관내 동일 유형의 최다 아동복지시설인 만큼 지역 내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세종=이정복기자

홍성군, '2016 나눔 캠페인' 시 · 군 순회모금

군 본관 로비 사랑의 온도탑 설치

홍성군이 지난 4일 '작은기부,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희망 2016 나눔캠페인 시.군 순회모금 행사"를 개최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군청 대강당에서 기관.단체 및 공무언, 일반주민 어린이집 아동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군은 본관 로비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는 등 홍보를 전개해 군민들의 참여와 이웃사랑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사랑의 열매 전달식, 사랑의 온도탑 설치, 성금모금, 기념사진촬영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 되었으며 이는 논산, 당진시를 이어 충남에서 3번째로 개최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군청, 읍.면사무소 등에 성금 접수창구를 운영하며 성금납부는 지로 및 사랑의 계좌모금, 집중모금행사 모금, 물품 모금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모아진 성금은 우리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므로 부디 사랑의 온도탑이 100°C 넘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사랑과 정성을 모아달라 "고 당부했다.

내포=이지웅기자

●동 정●●●

읍면동장회의 주재

이춘희 세종시장= 8일 오전 9시 집현실에서 읍면동장회의를 주재, 오전 10시와 오후 4시 30분에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주재.

예비군부대 정기감사 강평회

임상전 세종시의회의장= 8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세종시 동원 및 예비군부대 정기감사 강평회 참석.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8일 오후 2시 30분에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당진지역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 참석.

2015 학부모 아카데미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8일 오전 10시 세종교육연구원 강당에서 열리는 '2015 학부모 아카데미' 참석.

연탄 전달식

김석환 홍성군수= 8일 오전 11시 30분 구항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연탄 전달식 참석.

한돈협회 사랑의 쌀 기탁

황선봉 예산군수= 8일 오전 11시 봉산면 사무소에서 열리는 봉산면 여성의용소방대 발대식 참석,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열리는 예산청년회의소 사랑의 쌀 기탁 참석, 오후 3시 제1회의실에서 열리는 모범음식점 지정증 수여 및 간담회 참석, 오후 4시 군수실에서 열리는 한돈협회 사랑의 쌀 기탁 참석.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겨울철 재난대비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년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기온의 변동폭이 크고 1월까지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재해 취약 농업시설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종시는 내년 3월 5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하여 대설 특보시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기상상황 및 행동요령을 휴대폰 문자로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예방을 위해 ▲보리류 볏짚, 퇴비, 왕겨 등으로 덮기 ▲채소류 2중 온실 출입문, 일몰 전 보온피복으로 방열 방지 ▲복숭아, 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 나무 밑동 보온처리 ▲비닐하우스, 인삼 재배시설 등 농업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김정환 기자

(042)538-3030 daejeontoday.com

동정

송년의 밤 행사

김홍장 당진시장=8일 오전 11시 접견실에서 열리는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6 전달식에 참석, 오후 4시 당진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47차 당진경제포럼 세미나에 참석, 오후 5시 30분 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5 자원봉사자후원자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

기념행사

유기준 아산시의회 의장=8일 10시 30분 시민홀에서 열리는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

태화회 정례회의

한상기 태안군수=8일 오후 5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태화회 정례회의에 참석

추진상황 보고회

이석화 청양군수=8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선6기 2015년도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

아산학 강의

현재규 아산교육장=8일 오전10시 30분 선문대 교양학부에서 아산학 강의.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

심재진 당진교육장=8일 오후 2시 30분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2015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에 참석.

삽교호 수질개선사업에 '총력'

당진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 수질오염총량제로 수질개선

당진시가 당진, 예산, 천안, 아산, 청양, 홍성 등 6개시군, 26개 읍면 2만 5000ha의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삽교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삽교호는 천안 아산지역에서 유입되는 곡교천과 예산, 홍성 지역에서 유입되는 삽교천, 당진시에서 유입되는 남원천을 주요 지류로 하나 그동안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으로 인해 준공 당시 2급수였던 수질이 지금은 6급수로 오염돼 있다.

이에 당진시는 남원천을 대상으로 충남연구원에 의뢰해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실태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공모사업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에 응모해 금년 4월 사업대상지로 확정됐다.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 하수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동원해 오염하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8년까지 총 780억원을 투입해 삽교호 수질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오염 발생지역의 오염삭감량을 자율적으로 정해 수질오염원을 저감하는 한편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삽교호의 주요 유입지류 지역인 천안, 아산과 함께 기타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6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삽교호는 시의 생명수로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삽교호수계 4개 읍 · 면 주민 2000여명에 대해 지난 8월 수질개선 필요성 및 주민실천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논물가두기로 내년 봄 가뭄 선제 대비

군 전역 550만톤 용수 확보 가능 · 이달부터 본격 실시

가뭄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태안군이 내년도 적기영농추진을 위해 논물가두기 운동에 나선다.

태안군은 내년 봄 가뭄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가을걷이를 마친 논에 미리 물을 가둬두는 '논물가두기' 운동을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주민 홍보 및 기술지도에 돌입했다.

논물가두기 작업을 실시하면 비가 적게 와도 모내기 작업을 할 수 있고 저수지 물도 아낄 수 있으며, 특히 물을 가둔 논은 물이 말라도 물기가 남아 있어 일반 논 대비 24%에 불과한 물의 양으로도(3cm 깊이 물가두기 기준) 모내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또한, 논물을 가두면 도열병, 흰잎마름병, 이삭누룩병, 이화명나방 등 병해충과 잡초 발생이 줄어들며, 물에 의해 영양분이 공급되고 유기물의 과다한 분해도 억제되는 등 벼 생육환경이 더욱 좋아진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내년 1월부터 파손된 논두렁 정비작업을 실시한 후 소형 관정과 양수장비 등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논물가두기 운동에 나설 계획이며, 용수절약을 위해 용수 확보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못자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8개 읍 · 면에 논물가두기 홍보 현수막 총 24개를 설치하고 각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볏짚 곤포사일리지 조기 수거를 지도하는 등 사전적 · 적극적 가뭄예방 대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가뭄이 내년까지 지속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올해 총 37억 3400만원을 투입해 저수지 10개소와 관정 40공, 하천 5개소, 들샘 63개소 등 총 118개소의 용수원 개발에 나서며 적극적인 가뭄 극복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10년 묵은 이웃 갈등 해결

지난 10년간 이웃 사이에 해결되지 못하던 경계분쟁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속 시원히 해결돼 화제다.

2일 청양군에 따르면 운곡면 영양 1지구 내에서 경계에 대한 의견차이로 10여년 간 지속돼온 분쟁을 1대1 맞춤형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에게 큰 만족감을 줬다.

이곳은 지난 2003년 경지정리가 시행됨에 따라 기준점 성과와 현황이 불일치한 불부합 지역으로 지적측량자마다 성과가 다르게 제시돼 경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던 지역이다.

특히, 000번지 일부 진입로 부지는 세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했으나 토지소유자가 1인으로 되어 있어 친척 간 대화가 단절되고 경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청양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양지사는 토지소유자 의견 및 측량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 가구가 함께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 10년간 이어지던 분쟁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간 사용한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공부상 위치와 경계,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사업이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온양5동 통장협의회 희망 장학금 전달

아산시 온양5동 통장협의회는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7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청소년 2명에게 졸업 축하메시지와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총 100만원으로 통장협의회가 직접 재배한 고구마 수확을 통해 마련했으며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청소년에 전달됐다.

신종우 온양5동 통장협의회장은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이 큰 꿈을 품고 학업에 정진해 지역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지통장들이 작은 정성을 전달했다"며 "고구마 수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강용구 온양5동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복지통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줄로 하나 되는 세상 · 화합 위한 쌀 모으기

당진시, 2016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당주미 모은다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가 2016년 4월 7~10일까지 펼쳐지는 '2016년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우리의 소중한 미풍양속을 지키고 대동화합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에 쓰일 '당주미(堂酒米) 모으기' 행사를 12월 14~18일까지 시청과 송악읍사무소,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에서 병행 모집한다고 밝혔다.

'당주미 모으기'는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마을과 개인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 주민들이 당제에 사용할 쌀을 십시일반 모았던 풍속이다.

예로부터 시작해 1900년대까지 이어져 왔으나 이후 점차 사라진 것을 2013년부터 주민대동화합의 기지시줄다리기 정신 구현을 위해 다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속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염원을 위해 축제 시작 100일전인 12월 22일(동지)에 당주를 담그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담근 당주는 축제를 준비하는 많은 이들의 100일간의 피땀과 더불어 축제의 시작과 함께 그 진해진 맛을 맛볼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축제위원회는 기지시줄다리기 당주미 모으기 및 당주담그기를 시작으로 줄제작에 필요한 볏짚구매 및 면천/당진IC 홍보 현수막 게첨 등 2016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를 대한민국 대표적 민속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영인산자연휴양림 눈썰매장 개장

아산시 영인산휴양림사업소(소장 최홍락)은 눈 썰매장을 이달 24일 개장해 아음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150m의 슬로프 길이에 4500㎡의 면적을 자랑하는 영인산 눈썰매장은 겨울철 방학을 맞아 영인산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겨울의 낭만과 정취를 가족 · 연인 · 친구 · 동료들과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입장료는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어른 5000원이다.

운영기간 중 휴무일은 없으며 천재지변 등과 같이 현지사정에 의해 운영이 불가할 때에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온양3동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열려 아산시 온양3동(동장 전병관)은 청소년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일 청소년지도위원(위원장 김병대)의 주관으로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통장협의회 등과 함께 한올중 · 고교 통학로 주변에서 무단횡단 금지 및 정지선 지키기 교통질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산시 농촌일손돕기 펼쳐

기업경제과, 자매결연마을에서 고추밭 정리

아산시 기업경제과(과장 김성철) 직원들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부서 자매결연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민원필수 요원을 제외한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음봉면 신정리 소재 약 3,000㎡의 비닐하우스 4동의 고추밭을 정리하며 2016년도 고추 풍년을 지역주민과 함께 기원했다.

고추밭 주인 A씨는 "밀폐된 비닐하우스내에서 일하면 먼지가 많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데, 시 자매부서에서 찾아와 열심히 고추밭을 정리해줘 올해 농사를 마칠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성철 기업경제과장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것이 사실 어려웠지만, 어려운 만큼 가슴 뿌듯함을 느꼈으며, 내년에는 이 자리에 다시와서 고추를 심고 싶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내년 강소농 육성사업 농업인 모집

태안군, 경영진단 ·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태안군이 강소농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자율 · 자립 경영을 실천하는 강소농(强小農) 육성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2016 강소농 육성 참여 농업인'을 모집한다.

선착순 40명을 선발하는 이번 강소농 육성사업은 미래성장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업농 미만 중 · 소규모 가족농이 신청 대상이다.

강소농 경영체로 선정된 농가는 기본 · 심화 · 후속의 3단계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의 기회가 주어지며, 아울러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단, 맞춤형 컨설팅, 자율실천 학습모임활동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부터 강소농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올해 참여농업인들로부터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강소농 육성을 통해 농가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지역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소농 육성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670-5023(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정한기자

'내 생애 첫 책'은 정산도서관 함께

청양군 정산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관하는 '내 생애 첫 책'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내 생애 첫 책' 사업이란 청양군에 거주하는 영유아(6~36개월)에게 무상으로 책 보따리를 제공하고 자녀와 독서를 통해 교감할 수 있는 부모 독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또한 사업을 함께 진행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책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영유아들이 책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책을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생각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일정이나 궁금한 사항은 정산도서관(940-25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제2회 드림스타트 가족축제' 성료

서천군 드림스타트, 유대강화 · 화합 다지는 계기

서천군은 지난 12월 5일 서천군 청소년수련관 서천마루에서 드림스타트 가족, 자원봉사자, 협력기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드림스타트 가족축제를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가족축제는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이 1년 동안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표하는 자리로 아동의 사회성 및 자존감 향상은 물론 가족간 유대강화와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식전행사에서는 포토존에서 '즉석 가족사진 촬영', '드림스타트 활동 사진전', '드림스타트 영상물 상영', '핸드드립커피 시음행사' 등으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본 행사에서는 모범가족 및 후원기관(푸른치과, 김희정심리치료상담센터)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발표회 시간에는 총 7개 팀이 참가해 우쿠렐레 연주, 방송댄스, 난타, 피아노 연주 등을 선보이는 자리를 가져 참여자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고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관내 · 외 여러 협력기관의 후원으로 다양한 경품 추첨행사를 진행해 드림스타트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노박래 군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치하하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에게 동등한 출발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기관 및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천=김태선기자

직무능력 향상 위한 워크숍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 위해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해용)은 지난 주말 1박2일 일정으로 정림사지박물관 영상실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직무능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직무능력 강화 워크숍은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고객서비스 제공 및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IS(이슬람 국가)의 파리 테러와 관련 최근 미국 지원국가의 추가 테러보복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됨에 따라 유사시 테러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보교육, 공단 이용고객의 불만족을 제로화하기 위한 고객응대 요령,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고객응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정부3.0 추진 3년차를 맞아 정부3.0의 가치(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를 공유 · 확산하기 위하여 대전대학교 곽현근 행정학교수를 초빙하여 정부3.0 교육과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노사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 이사장과 직원간의 대화를 통해 선진 노사문화 정착은 물론 공단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단 운영의 안정화 및 조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박해용 이사장은 "워크숍을 통해 대 · 내외적 요인에 따른 공단 이용고객의 안전 및 서비스 질 향상에 최우선을 두고자 했으며,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한 개개인 업무 전문성 강화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발돋움하여 부여군민에게 사랑받는 최우수 공기업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논산=한대수기자

계룡제1농공단지 선 분양 실시

사통팔달 교통망 중부권 최고 입지여건… 분양 '활기' 전망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천혜의 입지조건과 최적의 교통망을 갖춘 '계룡 제1농공단지'의 분양이 실시되어 대전 등 인근지역 기업들을 중심으로 분양에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계룡IC에 인접한 입암리 일대에 4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중인 총 193,730㎡ 규모의 계룡제1농공단지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 분양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계룡제1농공단지를 시 핵심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해 왔으며, 맞춤형 첨단농공단지 조성으로 강소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에 분양하는 계룡 제1농공단지 분양면적은 총 28필지(98,446㎡)로 산업시설용지 26필지(90,138㎡), R&D용지 2필지(8,308㎡)이며, 산업시설용지에는 음 · 식료품, 전자부품, 전기 · 장비, 기타 기계 · 장비 업종과, R&D용지에는 연구개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다.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KTX가 정차(18회)하는 계룡역(4km)과 인접하였고 호남고속도로 계룡IC가 단지 옆에 위치하고 있어 경부고속도로 및 천안~논산간 고속국도와 연결되어 있는 중부권 최고의 교통망을 갖추었다.

특히 신탄진~서대전~계룡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망(1단계)이 2022년 개통되어 신탄진에서 계룡까지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농공단지 앞을 통과하는 대전~논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설계중에 있는 등 최적의 교통여건 중심에 있는 농공단지로 더욱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분양공고 전 계룡시와 사전 협약(MOU)을 체결한 2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며, 현재 인근 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 조기분양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계자는 "예로부터 계룡은 풍수적으로 '금계포란', '비룡승천' 형이라 하여 대길지이며,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교통중심지로 기업하기 좋은 입지여건과 완벽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계룡으로 오시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계룡제1농공단지 분양상담은 계룡시 지역경제과(042-840-2521~4)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주선웅기자

기업의 '기(氣)' 살리는 구본영 시장의 소통 행보

천안시, 기업체 방문 대화 · 간담회 열고 기업애로 해결 힘써

구본영 천안시장이 올 한해 기업인들과의 소통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펼쳐온 기업체 방문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기업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 애로를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한 구본영 시장의 소통행보는 올해 초부터 개별기업과 산업단지 등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펼치면서 시작됐다.

풍세산업단지를 비롯한 각각의 산업(농공)단지를 방문하여 총 9차례 간담회를 열고 단지별 입주기업체 임직원들이 기업운영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 성환, 직산, 목천읍 등 관내 개별 기업체 24곳을 찾아가 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산과정을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방문하는 기업체나 산업단지 등에서는 도로확장, 시내버스 운영 및 도로 교통여건 개선, 상수도 급수,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 등 기업 운영과 관련한 각종 인프라 개선사항을 비롯해, 인력확보의 어려움 해소, 상품의 판로개척, 제설작업 등 90여건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시는 접수된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부서별로 최대한 신속한 처리 및 해결을 추진하여 37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했다.

연내 처리가 어려운 사항들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키로 하는 등 기업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시에서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된다"며 "시의 문턱이 많이 낮아져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업인들의 까다롭고 어려운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처리사항에 대해 빠르게 회신해 주는 천안시 공무원들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위한 방문 및 간담회 개최가 기업활동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고 있으며,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지역 기업인들이 불편함 없이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민선 6기 들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 들어 LG생활건강 퓨처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하였고, 제5일반산업단지도 연말까지 분양 완료가 예상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투자환경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및 기업민원 신속처리를 위하여 앞으로 허가 전담 부서를 신설할 예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와 같은 앞으로의 천안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천안=김정환기자

황명선 논사시장 '희망의 봄을 향한 겨울맞이'

12월 중 월례회의 열려…청소년대표 '멋진시장님상' 전달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를 개최, 희망의 봄을 맞이할 겨울을 열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황명선 시장은 지난 7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12월 월례조회서 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국 · 도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고 함께 축하박수를 나눴다.

특히, 청소년자치활동 대표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황명선 시장에게 '멋진시장님상'을 전달, 손수 만든 카네이션 종이꽃다발과 특별한 마음이 담긴 손편지를 전달해 감동을 선사했다.

또, 영외면회제 부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광역 · 기초 중 단 2곳만이 수상의 영예를 안은 제2회 CSV 포터상(프로젝트 창조 · 혁신성부문)을 수상한 데 대해 그 공로를 치하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11월 중국 제녕시와 청소년 교류에 관한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전국 최초 논산 고교생 전원 해외교류를 성사시키며 명품교육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며 "남은 기간동안 교육뿐아니라 역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이 살기 좋은 논산건설을 뒷받침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바쁜 업무에도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이 옳다면 이를 계기로 업무를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시장는 이 밖에도 ▲폭설 · 한파 · 동파 · 제설을 비롯한 월동기 주민생활안정대책 추진 철저 ▲연말 어려운 이웃 사랑나눔 동참 ▲각종 사업의 철저한 마무리와 내년사업 조기추진에 대한 만전 ▲연말연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당부했다.

이어 "연 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따뜻한 시민 사회실현을 위한 다음 해로의 순항을 준비하는 알찬 12월이 되기를 바란다"며, "겨울철은 소외된 이웃들이 더 답답하고 힘든 시기인 만큼 따뜻하게 더 관심을 갖고 잘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영외면 회제 부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CSV 포터상을 받은 황인혁 미래사업과장, 지자체 폐기물거래 UP캠페인 종합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한 이승원 환경과장, 2015지적측량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임한석 토지관리과장이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보육사업발전에 기여한 최지혜 주무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농촌 균형발전에 기여한 이영진 주무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이학원씨 외 39명이 농업인 실용교육 유공, 보육사업 유공, 지역발전유공 등으로 시장표창을 수상했다.

논산=한대수기자

부여상권 청년상인 유치를 위한 팸투어 열려

청춘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를 주제로 열려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이사장 홍성목, 이하 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 5일 부여상권 및 부여군 일원에서 "청년창업 in부여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에서는 부여상권에서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39세 이하 청년들 20여명이 참가하여 부여상권과 부여의 문화관광자원을 직접 둘러보고, 부여상권의 가능성과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참석한 청년들에게 '부여 청년상인육성프로젝트'의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기존 부여 내에서 창업한 청년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해 청년창업의 비전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도록 했다.

'역사문화관광도시 부여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지역 소개와 함께 '부여 청년상인육성프로젝트' 안내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부여에서의 청년창업'을 주제로 한 사례 발표는 김정호(눈부셔 양송이농장 대표)씨가 맡아서 진행했다.

'부여 청년상인육성프로젝트'는 부여시장 내 빈 점포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을 통해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청년상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여 지역 거주자 뿐 아니라 부여에서의 창업에 관심있는 39세 이하의 청년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부여=한대수기자

동 정

농업발전위원회 회의

구본영 천안시장=8일 오전 11시 2015 시민문화여성회관 하반기 수료식에 참석하고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4분기 농업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

㈜한미식품 준공식

황명선 논산시장=8일 오후 2시 ㈜한미식품 공장에서 개최되는 ㈜한미식품 준공식에 참석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노박래 서천군수==8일 오전 10시 장항전통시장에서 열리는 제237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에 참석하고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5년 지역복지사업 우수지자체 합동시상식에 참석한 후 오후6시 농업기술센터교육관에서 열리는 2015년 서천군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에 참석.

희망나눔 캠페인 행사

이용우 부여군수=8일 오후2시 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나눔 캠페인 행사에 참석.

이젠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논산시, 사회복지시설 현장안전점검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시민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시는 4일 안전관리자문단, 자율방재단 등 지역 안전문화운동 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속 위험요소 이젠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문화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단장 윤석권),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남부지

사 등 유관기관, 안전관련단체와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일원에서 안전홍보용품, 홍보전단등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논산을 구축 하고자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과 관련부서 합동으로 안전이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4개소와 아파트공사현장 1개소에 대한 전기, 가스등에 대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005년 6월 조직된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갖고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과 상담은 물론 취약계층 안전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논산시 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논산=한대수기자

동 정

노사화합 한마음대회

오시덕 공주시장= 8일 오전 10시 30분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열리는 충남새마을운동 촉진대회에 참석, 오전 11시 20분 공주시 민방위 교육장에서 열리는 자율방재단 정기교육에 참석, 오후 4시 공주 리버스컨벤션에서 열리는 공주시 기업인대회 및 노사화합 한마음대회 참석.

보령신항 개발 · 해양발전세미나

김동일 보령시장 = 8일 오전 11시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오전 11시 30분 갓바위식품에서 열리는 기업체 현장근로자와의 간담회, 오후 2시 보령신항 개발 및 해양발전세미나, 오후 3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민원상담의 날 운영, 오후 6시 우리콩참된장 식당에서 열리는 보령시 기업인협의회 송년행사 참석.

교육삼락회와 간담회

이완섭 서산시장= 8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교육삼락회와 간담회에 참석, 오후 2시 30분부터 서산IC 입체화도로 개설공사 등 주요 사업현장 방문.

금산인삼축제 결과 보고회

박동철 금산군수= 8일 오후 5시 대회의실서 열리는 제35회 금산인삼축제 결과 보고회 참석.

공주교육 성과보고회

조병택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8일 오후 3시 30분 청내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5 공주교육 성과보고회 참석.

가뭄 대비 농업용수 공급사업 순조

공주시, 15억 8400만원 투입… 관정 개발 · 저수지 준설 · 양수장 설치 차질없이 진행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가뭄 대비,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올해 봄에 착공한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조만간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국 · 도비 8억 9500만원 포함 15억 8400만원을 투입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 양수장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 등 18개 지구에서는 중형 관정 개발을 완료,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정안면 사현 저수지 등 10개 저수지에 대한 준설과 사곡면 운암리 등 3개소에 대한 양수장 설치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 추진되고 있는 관정 개발지구들은 대부분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용수로의 물이 닿지 않는 등 잦은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경작에 많은 불편이 따르는 지역이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최종 완료 될 경우 이 지역 18개 지구 54ha의 농경지가 상습적인 가뭄에서 벗어나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돼 농촌생활 환경개선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올 가을 유래 없는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앞으로 더 심각해 질 것을 감안 내년에도 9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관정개발과 저수지 준설, 양수장 설치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주시 건설과 농촌개발담당 신중섭 팀장은 "최근 가뭄으로 인해 벌써부터 내년 농사걱정을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다"며, "농민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금산군 내년도 국비예산 1196억원 확보

올해대비 14.7% 153억원 증가

금산군은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1196억원(국가시행사업 23억원, 충남도 시행사업 94억원, 금산군시행사업 107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년대비 14.7%, 153억 원 증가한 수치다.

2016년 국비확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시행사업으로 2018년 금산군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사업에 23억 원이 확보돼 가시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충청남도시행사업으로 금산IC~충북도계 확포장 공사에도 94억원이 배정됐다.

군 시행사업 중 신규사업으로는 ▲엑스포주차장 조성 28억 ▲남일면 등 농촌마을종합개발 10억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8억 ▲금산역사문화박물관건립 5억 ▲작은영화관건립 5억 ▲소각시설 설치 2억 ▲흑삼 개별인정형 등록 2억원이 확정됐다.

계속사업은 ▲권역단위 농촌마을정비 44억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3억 ▲지방하천정비 32억 ▲지방상수도 설치 23억 ▲우수저류시설 정비 15억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13억 ▲인삼산업 마케팅 10억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6억 ▲친환경약초생산단지 조성 3억 등이다.

군은 내년에도 2017년 국비확보를 위해 1월부터 신규사업을 조기 발굴, 중앙부처 등 국비예산 확보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금산=김남규 기자

백삼효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금산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백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백삼의 효능연구사업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백삼의 효능연구 사업은 고려인삼의 원류인 백삼산업의 활성화와 제2의 인삼산업 중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소장 박종대)에서 진행하고 있다.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표미경 천연물소재연구실장은 "지난해 백삼 효능 연구 사업 I 에서 진행한 세포 레벨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한 결과, 흰쥐에 백삼이나 홍삼 투여후 혈소판 응집 억제능 및 혈장 응고 억제능을 통한 혈행개선 효과, 치매유도 동물 모델에서의 학습 및 기억력 개선 효과,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 흰쥐에서 항산화 효소인 SOD와 GPx의 활성도가 백삼과 홍삼이 거의 차이가 없거나 일부에서 백삼이 홍삼보다 우수한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표 실장은 또 "려인삼 사포닌의 약 35~60%를 차지하고 있는 말로닐 진세노사이드의 백삼과 홍삼의 비교연구는 지난 11월 27일에 열린 고려인삼학회에서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회나 논문발표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하여 백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참석한 인삼기관 · 단체장들은 백삼이 홍삼과 비교해 효능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백삼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산=김남규 기자

의평천 도랑살리기 사업 마무리

깨끗한 수질 개선 · 주민의식 변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발생

보령시 청라면 의평 1리 마을에서 추진한 의평천 도랑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돼 7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된 의평천은 마을을 가로 지르는 소하천으로 수년간 방치로 각종 쓰레기와 잡초가 무성해 경관저해는 물론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됐었다.

이곳 의평천 도랑은 지난 5월 도랑살리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의평1리 도랑살리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선구)가 발족되고, 추진위원회에서 도랑 복원사업을 추진해 옛 모습으로 복원하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 5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8월에는 주민 간담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틀을 잡았으며 9월에 타시군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추진의지를 다졌다.

이번 사업에는 총 3000만원이 투입돼 석축 쌓기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물길조성 공사로 도랑의 물꼬를 텄으며, 오물 제거를 위한 하천 준설을 추진했다.

또 미나리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연못을 조성해 생태 복원에 힘썼으며, 도랑 인근에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홍보 입간판을 설치해 마을 도랑 살리기의 복원 과정과 관리 현황을 스토리텔링화 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부터 매주 주민들이 참여해 하천 쓰레기 수거와 잡초제거를 실시했고, 도랑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꽃길도 조성해 준공하게 됐다.

그 결과 도랑 살리기 운동 추진 이후 쓰레기 투기 감소로 하천의 수질이 개선됐으며, 주민 자율 정화활동 추진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내고장 가꾸기 의식도 향상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도랑살리기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게 됐다"며, "도랑 복원을 통해 깨끗한 수질 개선, 주민의식 변화,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 관리 ·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올해 청라면 의평1리 의평천을 포함해 웅천읍 성동3리 성동천, 주교면 신대1리 사기장골, 청라면 옥계리 옥계도랑, 미산면 풍계리와 도흥리 등 8개소에서 도랑살리기 사업이 추진됐다.

보령=김태선기자

보령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열려

보령에서는 눈 덮인 오서산과 겨울바다를 한눈에 내려 볼 수 있는 바람타고 떠나는 하늘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바람이 솔솔 부는 가을철이 페러글라이딩의 적기이지만, 보령의 하늘에서는 겨울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활용해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매니아부터 시작해서 처음 타보는 사람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하늘여행을 즐길 수 있다. 보령의 옥마산 활공장에서 오는 13일 참가 선수와 가족 등 500여 명의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열린다.

국민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충청남도, 보령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13일 오전 11시 보령시청소년수련관에서 개회식을 하고 활공장으로 이동해 대회를 가진다. 대회는 학생부(초 · 중 · 고), 어르신부, 여성부, 연습조종사부, 장거리부, 단체부로 나눠지며, 참가자격은 패러글라이딩 협회 회원으로서 참가 부문별 자격소지자로 행사 당일인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접수한다.

앞선 12일에는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을 초청해 2인승 체험비행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기타 참가문의는 보령시패러글라이딩연합회(http://cafe.daum.net/jinho3035)나 전화(정태팔 회장 010-5433-7545)로 하면 된다.

보령=김태선기자

공주 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추진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시민의 숨어 있는 재산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땅 찾기는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1960년 1월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와 직계가족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친자의 경우에는 상속권이 있어 신청할 수 있다.

상속권자의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시가 나타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일 경우 법적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후 공주시청 토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시는 올 한해 784건의 조상땅 찾기 신청을 받아 2,037필지의 개인소유토지현황 자료를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판단,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시 토지과 지적관리팀 이혜정 담당은 "올 한해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잊고 있던 조상땅을 찾아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우/리/동/네

국가통계통합DB 우수기관 선정

서산시 통계청장 표창 수상

서산시가 통계청 주관 2015년 국가통계통합DB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8일 통계청장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국가통계통합DB 유공 표창은 통계청이 매년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통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DB 운영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게 수여하는 표창이다.

2009년부터 서산시 기본통계 250여종을 DB화하고 이를 꾸준히 업데이트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서산시가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각종 통계지표의 체계화 및 시정 현실을 반영하는 신규지표 개발 등을 통해 시정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 ·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은 시의 이러한 노력이 외부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2013년에도 통계조사 운영 및 통계 발전에 이바지 한 공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충청지방통계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산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신규 통계를 개발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금산 성현인삼튀김 착한가게 가입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위치한 성현인삼튀김(대표 문성현)이 7일 오전 10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관형)가 진행하는 중소자영업자 모금캠페인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문성현 대표(우측)가 착한가게 가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산시 · K-water, 12월 절수지원금 지급

계량기 당 평균 22㎥ 절약 효과

서산시와 K-water 서산권관리단(단장 고명환)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물 절약에 앞장 선 수용가들을 대상으로 12월 절수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절수지원금이란, 전년 동월 수도사용량 대비 절감한 양만큼 1㎥당 광역 상수도 정수요금 단가의 3배인 1,240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달 부과하는 수도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서산시는 12월 총 11,481개의 수용가에 3억여 원에 달하는 절수 지원금을 이번 달 수도요금에서 차감하여 고지한다고 밝혔으며, 이 중 가정용은 8,524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원 정도에 달한다.

계량기 당 평균 절감량은 22㎥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 11월 절수지원금이 지급된 8,161개의 수용가와 비교하면 그 수가 3,000개소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수용가의 47% 수준으로 서산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절수 운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최근에 가을 단비가 지속적으로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서산시는 가뭄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뭄극복 TF팀까지 구축하고 대체수원 개발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 · 충남본부

저소득가정 의료비 성금 '쾌척'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 · 충남본부에서는 7일 보령시를 방문해 저소득 가정 아기의 적기 치료를 위해 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선천성 식도폐쇄 기형아로 태어나 기관식도루절재 수술 등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저소득 가정 아이가 있어 시 보건소에서 후원지를 찾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자체 후원회로 운영중인 아기사랑후원회에서 후원 의사를 타진해 지원하게 됐다.

이란구 본부장은 "선청성 기형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를 위해 이번 의료비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아이가 꿈과 희망을 갖고 병마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아기사랑 후원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의료비를 후원하여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령=김태선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내일도 승리 (MBC오전 7시50분)

승리(전소민)는 블로거 사건이 재경(유호린)이 꾸민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동천(한진희)을 찾아가려 하지만, 동천을 찾아가면 자신은 홍주(송원근)에 대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한다. 한편, 태성(전인택)의 간장을 찾게 된 승리는 서동간장과 같이 비교분석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내 며느리(SBS오전8시30분)

현주는 성태를 떼어내기 위해 경민과 미국에 갈 준비를 한다. 이에 성태는 경민을 찾아가 미국을 간다면 루루와의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하겠다며 어떻게든 두 사람의 미국행을 막으려 한다. 한편, 미정은 양회장의 집을 찾아가 용이와 함께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집 꿀단지 (KBS2 오후 8시25분)

아란(서이안)은 블로거의 비방을 묵과하는 대가로 오봄(송지은)에게 돈을 건네고 오봄은 이를 거절하지만 미달(유혜리)이 몰래 아란에게서 돈을 받는다. 마루(이재준)가 오봄의 누명을 벗겨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오봄 이름의 사과문이 가짜였음이 밝혀진다. 태호(김민수)는 자신을 위해 아란이 거짓말했음을 알고 무참해 떠나려 한다. 급기야 아란이 오봄을 주점에서 해고하자 오봄은 아란을 찾아가는데...

케이블 명화

▲ 국가대표 (OCN 오후 5시30분)

1996년 전라북도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식 종목 중 하나인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이 급조된다.

이에 전(前) 어린이 스키교실 강사 방종삼(성동일 분)이 국가대표 코치로 임명되고, 그의 온갖 감언이설에 정예(?) 멤버들이 모인다.

전(前) 주니어 알파인 스키 미국 국가대표였다가 친엄마를 찾아 한국에 온 입양인 밥(하정우 분), 여자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나이트 클럽 웨이터 흥철(김동욱 분), 밤낮으로 술불만 피우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아온 고깃집 아들 재복(최재환 분), 할머니와 동생을 돌봐야 하는 짐이 버거운 말 없는 소년 가장 칠구(김지석 분), 그런 형을 끔찍이 사랑하는 4차원 동생 봉구(이재응 분)까지! 방 코치는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엄마와 같이 살 집이 필요한 밥에게는 아파트를, 사랑 때문에 또는 부양 가족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흥철, 칠구-봉구 형제, 그리고 재복에게는 군 면제를 약속한다. 단, 금메달 따면!

▲왓 이프 (채널CGV 오후 11시00분)

<왓 이프>는 사랑과 우정의 이면을 감성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이라는 독특한 구성을 채택했다. 영화 속에서 애니메이터로 등장하는 샨트리의 일러스트 그림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은 샨트리의 세밀한 감정을 동화 같이 표현하며 영화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예고 없이 만난 인연! 만약, 우리가 사랑이라면…?

시련의 상처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지고지순, 순정남 '월레스'(다니엘 래드클리프)

사랑스럽고 유쾌한 성격으로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녀 '샨트리'(조 카잔)

어느 날 파티에서 '샨트리'를 만나 첫눈에 반한 '월레스', 하지만 5년이나 사귄 번듯한 애인이 있었던 샨트리는 그에게 친구로 지낼 것을 제안하고 월레스는 애써 쿨하게 동의한다. 친구로 지내며 모든 순간을 함께 공유하고 추억을 쌓아가던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향해 커져가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데…

아슬아슬한 썸타기! 진짜 연애는 시작될 수 있을까?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060-398-3355

영화 · 오락

◈ OCN
4:10 노리개
5:50 콜렉션
7:10 소원
9:30 성범죄수사대:SVU 시즌16
13:30 더 임파서블
15:30 지구가 멈추는 날
17:30 국가대표
20:20 터미네이터 2
23:00 멘탈리스트 시즌7

◈ 채널 CGV
2:30 해무
4:30 인 더 블러드
6:30 굿모닝 맨하탄
9:00 나도 영화감독이다 2
10:30 미너는 괴로워
13:00 모비딕
15:30 빅 미라클
17:30 내가 잠들기 전에
19:30 론서바이버
22:00 왓이프

◈ Mnet
6:40 발칙한인터뷰 4가지쇼
7:40 M morning
8:10 방탄소년단의 아메리칸 허슬라이프
9:10 Mnet 슈퍼스타K7
10:40 Mnet Music Twit(SNS)
11:40 SIXTEEN
13:00 Mnet SHOW ME THE MONEY 시즌4
14:3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
16:00 방탄소년 단의 아메리칸 허슬라이프
17:00 Daily Music Talk (SMS)
17:40 SIXTEEN
19:00 2015 Mnet Asian Music Awards

스포츠 · 레져

◈ MBC스포츠플러스
7:00 2015 카스포인트 어워즈
9:00 국제 프리미어 테니스리그 마닐라대회
11:00 <당구스페셜> 2011 아지피 마스터즈 조별리그 월드레전드 매치
12:00 구구절절
13:00 M-1 격투기
15:00 2016 복싱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 SBS 스포츠
7:00 2015 WBSC 프리미어 12 명승부 8강 H/L
8:00 EPL 다이제스트
9:00 15-16 프로배구 남자부
11:00 15-16 EPL H/L
12:00 2015-16 삼성증권 mPOP GTOUR Winter Season 2차대회
13:00 15-16 ISU 쇼트트랙 월드컵 3차대한민국 H/L
15:00 프리미어12 특집 대한민국 야구, 다시시작하다

◈ 온스타일
7:00 처음이라서
7:30 스타일라이브: 일상의 탱구캠
8:00 달콤청춘
9:00 THE 태티서
10:00 2015 테이스티로드
11:00 처음이라서
11:45 겟잇뷰티셀프2015
12:00 겟잇뷰티2015
14:00 오 나의 귀신님
15:00 로맨스가 더 필요해
16:00 효연의 백만라이크
16:30 겟잇뷰티셀프2015
17:00 겟잇뷰티2015
19:00 제시카&크리스탈
20:00 더 바디쇼 시즌2

뉴스 · 다큐

◈ YTN
8:00 이슈 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 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19:30 신율의 시사탕탕
21:00 뉴스만만
22:00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 한국경제TV
6: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00 출발! 증시 특급
10:00 마켓 포커스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성공투자 오후 증시
16:00 글로벌 재테크 알아야 번다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취업정보센터
21:00 장외주식 사구팔구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순간포착! 위험한 동물들 (2)
13:00 와일드 순간포착
14:00 <물과 불의 공존 하와이 >1부. 불의 대륙
15:00 <물과 불의 공존 하와이 >2부. 신비의 바다
16:00 TV 동물농장
17:30 TV 동물농장
19:00 <와일드 파이트 클럽2>무자비한 싸움
20:00 마약중독자 히틀러
21:00 아시아 헌터
22:00 나는 자연인이다

음악 · 애니

◈ MBC 뮤직
7:00 MBC MUSIC HIT SONGS
9:10 WEEKLY HOT MUSIC
10:10 Show Champion Back stage
10:40 쇼! 음악중심
12:00 위대한 유산
13:30 복면가왕
15:10 마이 리틀 텔레비전
16:40 라디오스타
18:00 주간 아이돌

◈ 애니맥스
7:00 포켓몬스터 XY Part 4
8:00 터닝메카드
9:00 해피하모니 다마고치
10:00 유후와친구들3
11:00 출동! 슈퍼윙스
12:00 레고 스타워즈: 드로이드의 전설
13:00 파워레인저 트레인 포스
14:00 검정고무신 4
15:00 또봇 탐험대-태권전사K
16:00 헬로 카봇2
17:00 포켓몬스터 XY Part 4
18:00 검정 고무신

◈ JEI 재능방송
5:00 Rolly Rolly, Show me the Story
6:00 트리푸톰
7:00 TV 동화 빨간자전거2
8:00 라바 시즌3 Part 4
9:00 출동! 케이캅
10:00 출동! 슈퍼윙스
11:00 뽀롱뽀롱 뽀로로5
12:00 프렌즈
13:00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14:00 파워레인저 트레인포스
15:30 스페이스가디언
16:00 또봇 탐험대 전설의 기사기가세븐
17:00 라바 시즌3 Part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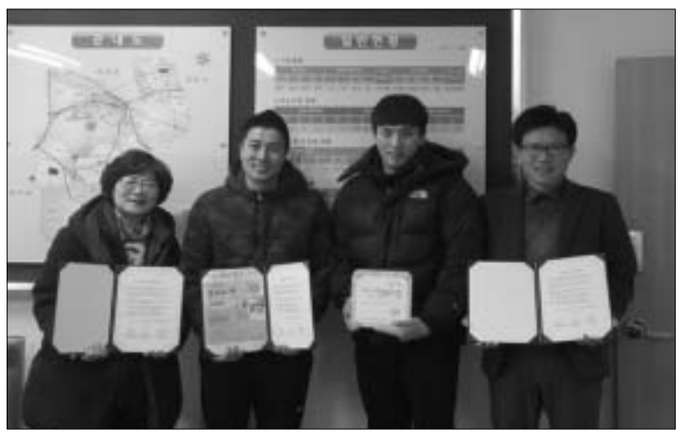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MBC 220-2348~9▶TJB 281-1101▶SBS (02)369-1090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 네트워크 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11:55 안녕 우리말 12:00 KBS 뉴스 12 1:00 KBS 명품역사관 역사저널 그날 1:50 세계가 품은 한국의 미 1: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2:00 청년 대한민국 꿈꾸라, 도전하라 3:00 ABU 국제공동제작 CARE 5 학교가는 길 3:55 튼튼생활체조 4:00 오늘의 경제 4:10 길어서 세계속으로 5:00 KBS 뉴스 5 5:20 시사진단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7:00 KBS 뉴스 7:30 이웃집 찰스 8:25 우리 집 꿀단지 9:00 KBS 뉴스 9 10:00 시사기획 창 10:55 세계가 품은 한국의 미 11:00 KBS 뉴스라인 11: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6:00 2TV아침 8:00 KBS아침뉴스타임 8:40 지구촌 뉴스 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1대 100 12:00 사람과 사람들 1:00 생생정보 스페셜 2:00 KBS뉴스타임 2:10 세상의 모든 다큐 3:05 후토스-잃어버린 숲 3:3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0 TV유치원 콩다콩 4: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4:40 동물의 세계 5:00 영화가 좋다 6:00 KBS글로벌24 6:30 2TV저녁생생정보 7:50 다 잘될거야 8:30 생생정보 8:55 1대 100 10:00 오 마이비너스 11:10 우리동네 예체능	6:00 MBC 뉴스투데이 7:50 내일도 승리 8:30 생생 방송 오늘 아침 9:30 MBC생활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1:00 찾아라! 맛있는 TV스페셜 12:00 MBC 정오뉴스 12:20 TV속의 TV 1:20 문화사색 2:05 내꺼야 폴록 2:30 꾸러기 식사교실 3:00 MBC뉴스 3:10 똑?똑! 키즈스쿨 3:55 꼬마돌 도도 4:25 아름다운 당신 5:00 MBC 이브닝 뉴스 6:10 생방송 오늘 저녁 7:15 최고의 연인 7:55 MBC 뉴스데스크 8:55 아름다운 당신 9:30 리얼스토리 눈 10:00 화려한 유혹 11:10 PD수첩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6:00 모닝와이드 8:30 어머님은 내며느리 9:10 좋은 아침 10:00 SBS 뉴스 10:40 SBS 생활경제 11:10 청담동 스캔들 11:50 SBS 12뉴스 12:45 불타는 청춘 2:00 영재발굴단 3:00 3시, 뉴스브리핑 4: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4:30 토닥토닥 꼬모 5:00 SBS 뉴스퍼레이드 5:30 로봇 트레인 6:00 생방송 투데이 7:20 돌아온 황금복 8:00 SBS8뉴스 8:55 스타 킹 10:00 육룡이 나르샤 11:15 불타는 청춘	6:00 정보의 발견 Foryou 6:30 CMB라이프 6:50 충청남도 영상소식 7:00 은혜로운 말씀 7:30 파워인터뷰 8:00 CMB 뉴스와이드 8:30 문학의 향기 9:00 CMB컵 유소년 축구리그 고학년부 4강전 10:00 CMB컵 유소년 축구리그 고학년부 4강전 11:00 다큐희망 11:30 버스킹 12:00 굿뉴스 12:30 아빠는 요리사 1:00 열전동네방네 2:00 악기의 탄생 1부 3:00 굿뉴스 3:30 다큐희망 4:00 섹션뉴스 4:30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창업 다큐 1회 5:00 CMB컵 유소년 축구대회 기록다큐2부 5:30 좌충우돌 블링블링 6:00 CMB 뉴스와이드 6:30 아빠는 요리사 7:00 섹션뉴스 7:30 버스킹 8:00 악기의 탄생 1부 9:00 CMB 뉴스와이드 9:30 파워인터뷰 10:00 WTA특집 SEM STORY 11:00 CMB컵 유소년 축구대회 기록다큐 11:30 보들라디오	6:10 EBS인문학특강 7:00 레이디 버그 7:30 뽀롱뽀롱 뽀로로 7:45 로보카 폴리 8:00 딩동댕 유치원 8:30 두다다쿵 8:45 코코코 다코 9:05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 9:40 부모-이슈N맘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큐 오늘 11:20 세계 테마 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3:05 지식채널 e 13:10 갤럭시 프로젝트 14:00 허풍선이 과학쇼 14:30 뚜바뚜바 눈보리 15:00 꼬마철학자 휴고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40 모피와 친구들 16:30 코코코 다코 16:45 딩동댕 유치원 17:05 딩동댕 유치원 17:15 두다다쿵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로보카 폴리 18:00 톡! 톡! 보니 하니1 18:05 캐니멀 18:20 톡! 톡! 보니 하니2 18:25 두키 팀험대 18:40 톡! 톡! 보니 하니3 18:45 신통방통 공룡슈퍼 18:55 톡! 톡! 보니 하니4 19:00 레이디 버그 19:30 EBS 뉴스 19:50 극한 직업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 테마 기행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다큐영화 길위의 인생

아산시 배방읍, 관내 복싱운동 후원 협약 체결

중 · 고등학생들 경제적 부담없이 운동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아산시 배방읍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운동을 배우기 어려운 중 · 고등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아산시 배방읍(읍장 전영근)과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오병국),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현선)은 지난 4일 배방읍사무소에서 관내 『K복싱』(대표 윤현식)과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K복싱은 복싱운동을 배우기를 희망하는 관내 기초수급가정,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무료 강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윤현식 대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운동을 접하기 어려운 중 · 고등학생에게 체계적으로 운동을 가르쳐주고, 체력단련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영근 배방읍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보내주는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나라의 새 일꾼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오빠생각' 티저 포스터-예고편 최초 공개… 기대감↑

<완득이> 이한 감독의 2016년 첫 감동대작

<완득이> 이한 감독의 2016년 첫 감동대작 <오빠생각>이 오는 2016년 1월 개봉을 확정,

전쟁 한가운데 울려 퍼진 희망의 노래가 선사할 가슴 따뜻한 감동과 울림을 예고하는 티저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을 최초로 공개했다.

영화 <오빠생각>은 한국전쟁 당시 실존했던 어린이 합창단을 모티브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전쟁터 한가운데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노래의 위대한 기적을 그린 감동대작이다.

<완득이> 이한 감독의 차기작이자 <변호인>, '미생'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최고의 핫스타 임시완, 20대 대표 여배우 고아성과 연기파 배우 이희준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는 <오빠생각>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들의 이야기로, 전쟁 한가운데 울려 퍼졌던 희망의 노래가 선사하는 진한 감동으로 2016년 새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포스터는 맑은 하늘 아래, 군인과 아이들이 나란히 함께 서서 밝게 미소 짓는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전쟁의 고단함과 상처를 잠시나마 잊고 서로 손을 잡고 보듬으며 활짝 웃는 표정으로 어우러진 군인과 아이들의 모습이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이번 포스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전쟁터, 그곳에서 시작된 희망의 노래!'라는 카피를 통해 이들이 전할 감동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여기에 전쟁의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지만 어린이 합창단을 통해 점차 변해가는 '한상렬' 소위 역을 맡아 군인 역에 첫 도전한 임시완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전쟁 한가운데로 뛰어든 선생님 '박주미' 역의 고아성은 한국전쟁 당시 상황에 녹아 든 모습으로 이전과 또 다른 연기 변신에 대한 궁금증을 배가시킨다.

티저 포스터와 함께 최초 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전쟁터 한복판, 터지는 포탄 속 격렬한 전투에 이어 동료들을 잃고 홀로 남은 한 군인의 등장으로 시작부터 몰입을 더한다.

잿빛의 전쟁터에서 아름답게 울려 퍼질 노래, 그로 인해 시작될 가슴 벅찬 기적의 순간을 기대케 하는 이번 예고편은 <완득이> 이한 감독의 따스한 시선, 섬세한 연출에 한국전쟁 당시를 고스란히 담아낸 규모감 있는 볼거리가 더해져 영화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다.

특히 치열한 전쟁 한복판에서의 모습부터 합창단 아이들을 지휘하는 모습까지 임시완의 한층 성숙하고 남자다운 변신이 공개돼 더욱 눈길을 끈다. 임시완은 군인 느낌을 내기 위해 몸을 만들고, 생전 처음으로 피아노 연주에 도전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져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고아성의 따뜻한 감성과 이희준의 강렬한 연기까지, 이번 티저 예고편 공개로 기대와 궁금증을 높이고 있는 영화 <오빠생각>은 2016년 새해 첫 감동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것이다.

여성회관, 2016년도 제1기 정규강좌 수강생 모집

아산시 여성회관(관장 오차남)이 2016년도 제1기 정규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로 모집인원은 35개 강좌에 총 727명이다. 모집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 및 기관 · 단체 종사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수강기간은 강좌별 12주에서 16주로 상이하다.

이번에 모집하는 제3기 여성회관 강좌는 가야금 등 취미 · 교양강좌 16개, 양재수선 등 기능 · 기술분야 11개, 제과제빵기능사 등 전문자격증 분야 8개로 운영될 예정이며, 폐백음식반과 라인댄스자격증반이 신설될 예정이다.

2016년도 제1기 정규강좌 개강일은 내달 4일로 수강 신청은 인터넷을 활용해 여성회관 홈페이지(http://woman.asan.go.kr)에 회원가입 후 자신이 원하는 강좌를 2개까지 신청한다.

수강생 선발은 12월 21일 인터넷 시스템으로 자동추첨하며, 추첨결과는 문자메세지(SMS)로 전송되고, 여성회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좌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여성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536-8487)로 문의하면 된다.

늘푸른예술단 공연 큰 '호응'

한국자유총연맹아산시지회 행복한 동행(센터장 김윤태)의 늘푸른예술단은 지난 3일 온양관광호텔에서 개최된 「2015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나란히 장기자랑 공연을 했다. 늘푸른예술단 순서가 되어 북한노래를 하고, 북제창을 하자 앵콜이 이어졌으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로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행복한 동행 김윤태 센터장은 "늘푸른예술단이 아산시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아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daejeontoday.com

EN.F Total Interior Design 엔.에프 대표 손혁건 Mobile 010-6422-6946

금촌 주·야간 단기보호센터 센터장 이 진 숙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267-4 유성청병외과 2층 H.P. 010-6417-7003 TEL. 042) 826-5554 FAX. 042) 826-5545

세종시교육청, 통학차량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7일 관내 유·초·중·고 통학차량 운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통학차량운전자 교육안전교육' 을 실시했다.

건양대, 간호학과 졸업메달 수여식 개최 건양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양남영 교수)는 7일 대전 메디컬캠퍼스 명곡홀에서 김희수 총장과 박창일 의료원장, 심희숙 대전시간호사회 부회장, 간호학과 교수 및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간호학과 졸업메달 수여식' 을 개최했다.

NH농협은행 금산군지부 백미 1000kg 기탁 NH농협은행 금산군지부(지부장 김상철)는 7일 연말을 맞아 어려움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00kg을 기탁했다.

아산소방서, 겨울철 화재예방 캠페인 전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음봉 지역 일대에서 소방공무원 및 음봉면 남·여의용소방대원(대장 강창환, 강미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예방 및 화목보일러 안전사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효동새마을협의회 김장담가주기 새마을지도자대전동구협의회(회장정오영) 소속 효동새마을협의회(회장 김홍현)는 지난 6일 효동관내 어려운이웃 50가구에 여름부터 회원들이 가꾸어온 배추와 무우 골파 갓 등을 수확해 김장김치 20kg을 담궈 훈훈한정을나누어 주었다.

온양5동 '희망2016' 집중모금행사 개최 아산시 온양5동(동장 강용구)은 7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희망2016나눔캠페인 이웃돕기성금 집중모금 행사를 개최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세종·충북지역 유관기관

스마트 농업벤처 육성·발전위해 업무협약 체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최길성), 세종지역산업기획단(대표이사 안승대),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 충북지식산업진흥원(원장 신필수), 충북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단장 장건익)은 스마트 농업벤처 육성·발전을 위해 7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창조경제 추진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ICT, IoT 기반 스마트 농업벤처 육성 프로그램 공동개발', '농·생명과학분야 연구·보유기술의 공유와 확산', '기관 보유 연구시설·기자재 공동 활용 및 인적 교류 확대 추진' 등을 위해 참여기관의 보유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최길성 센터장은 "오늘 유관기관 간의 협력강화가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모멘텀이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세종·충북지역이 농업분야 창조경제의 메카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충북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사업단(LINC) 장건익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충북지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대학과 지역의 공생발전에 기여하고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확산하는데 충북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과학분야의 역량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충북테크노파크 남창현 원장,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신필수 원장, 세종지역산업기획단 안아람 팀장도 "협약 이후 기관 간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해 지난 9월 11일 대전 및 충남테크노파크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범충청권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김정환기자

바르게 살기 서산지회, 바자회 열어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기금 마련 위해

바르게살기 서산지회(홍성만지회장)가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기금 마련을 위해 7일 서산시 분수 광장에서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바자회는 떡국과 지역농산물인 고박 고구마와 멸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산물도 같이 판매 했고 수입금 전액은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행사를 주관한 여성회장(이분순)이 전했다.

서산=김정한기자

계룡면 중장2리 경로당 준공식 가져

1억 4천만원 투입 73㎡ 규모로 방, 다용도실, 회장실 등 갖춰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난 5일 계룡면 중장2리 경로당(마을회관)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시덕 공주시장과 박수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 박태석 계룡면장과 마을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 새롭게 완공된 경로당의 준공을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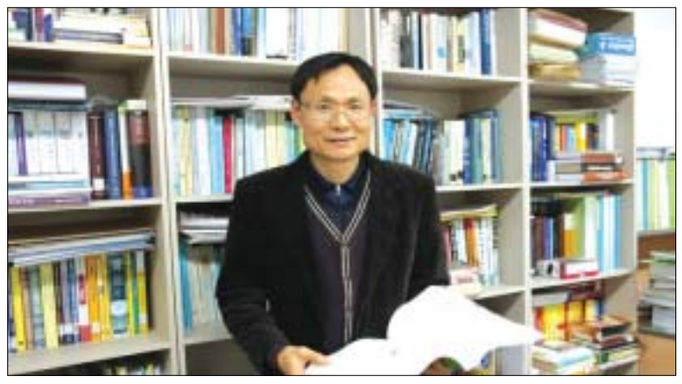
시에 따르면, 이번에 건립된 경로당은 총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056㎡의 부지에 건물면적 약 73㎡ 규모로 방, 다용도실, 화장실 등을 갖춘 실용적인 공간으로 건축됐으며,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 디자인을 갖췄다.

특히 그동안 중장2리 경로당(마을회관)의 경우, 노후된 건물과 협소한 공간, 시설물 빈약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쉼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마을 행사 등의 이용에 많은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번 경로당 준공을 통해 지역 노인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까지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마을회관의 기능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노호 중장2리 이장은 "경로당 준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시 관계자에 감사하다"며, "주민들이 쉽게 찾아오는 편안한 공간은 물론 만남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쉼터, 도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정착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목원대 수학교육과… 대수학분야 연구에 기여한 업적 인정

정상조 교수, 세계인명사전 등재

목원대학교(총장 박노권)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정상조 교수가 대수학분야 연구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년 판에 등재된다.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 은 세계 215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과학·예술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룬 인물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연구자들의 업적과 프로필을 등재하는 인명사전으로, 영국 국제인명센터(IBC)와 미국 인명정보기관(ABI)의 인명사전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손꼽히고 있다.

정상조 교수는 "앞으로도 관련된 학문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인성과 지적능력을 고루 함양한 훌륭한 수학교사양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상조 교수는 2009년 3월에 목원대학교 수학교육과의 교수로 부임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훌륭한 수학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교수와 학생간의 엄격함을 강조하기 보다는 학생들과 친구처럼 어울려 연구실에서 토론하고, 학습을 위한 장을 형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

김태선기자

새의자

유상규 신임 KT충남고객본부장 취임

유·무선분야 전문 경영인, 고객최우선 경영중시

"국토의 새로운 중심이 된 대전, 충남지역에서 근무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일 취임한 신임 유상규 KT충남고객본부장(53, 사진)은 "IoT기반의 초연결 시대를 맞이해 대전, 충남지역에 기가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KT만의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직원들에게 보낸 취임 메일에서는 즐겁게 일하는 직원들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직원만족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 임파워먼트를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한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과 부서간 소통을 통한 일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성균관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 KT에 입사한 유 본부장은 유통영업지점장, 무선단말전략팀장, 안산지사장, 강동지사장, 분당지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KT내에서 유, 무선분야의 마케팅 전략가로 통하고 있는 전문 경영인이다.

송병배기자

● 동정 ● ● ●

충남새마을운동 촉진대회

임동규 충청남도 새마을회장= 8일 오전 10시 30분 충남교통연수원에서 2015 충남새마을운동 촉진대회를 개최.

지혜의 샘물 발간식

박경수 새마을문고대전광역시지부 회장= 8일 오전 11시 서구청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제15회 지혜의 샘물 발간식에 참석·격려.

태안 태양어린이집 김종회씨 대통령 표창

태안 사회복지법인 태양어린이집 대표 김종회(사진)씨가 장학사업과 저소득층아동 지원사업 등 보육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김 대표는 태안군이 농·어촌지역으로 이뤄져 어린 영유아들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방임되는 것을 보고 보육의 불모지였던 태안에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태양어린이집을 1992년 설립해 안정된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영유아들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사들로부터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대학 및 관내 고등학교에 찾아가 유아교육학과를 지원해 유도하고 교육을 마친 학생들에게 고향에서 영유아교육을 담당해 줄 것을 홍보, 보육사업에 기틀을 마련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송해 빅쇼' 마지막 전국투어 홍성군에서

전 세대가 함께 공휴하는 휴머니즘 <송해 빅쇼>가 오는 12일 오후 4시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90수를 바라보는 최고령 희극인 송해 선생의 인생이야기가 악극형태로 선보이며 지난 30년간 전국노래자랑의 MC로서의 역할에서 자신의 인생 보따리를 펼쳐 보일 예정이다. 내포=이지웅기자

기 고

적극적인 법안처리에 총력 기울여야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2일 여야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에 대해서 '정기국회 내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은 본래 합의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처리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노동개혁 5대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은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안정법(기간제법), 중장년일자리법(파견법) 등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시급한 법안이다.

야당이 계속해서 노동개혁 법안을 발목 잡는다면 강성 폭력 집회를 주도한 귀족노조의 눈치만 보고 국가경제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한국산업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잃은 샌드백 신세'라고 진단한 바 있다.

지금 국가 안팎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말로만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이다. 적극적인 법안처리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건강 칼럼

"발목 안쪽에 안보이던 뼈가 불룩해요"

정재중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족부정형외과 교수

초등학생 안혜원(12)양은 신발을 신을 때마다 발이 불편하다. 발 안쪽에 뼈가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이다. 평소 전혀 통증이 없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지만, 신발을 신고 있으면 뼈가 신발과 맞물려 신경이 쓰인다. 부모와 함께 병원을 찾은 안양의 병명은 '부주상골증후군'. 부주상골은 대부분 안양처럼 통증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부주상골의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아동기, 성인 초기에 증상 나타나…불필요한 뼈로 불편 야기

발의 아치를 만들어 주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근육 및 힘줄이 후경골건이다. 후경골건에는 발목과 엄지발가락을 이어주는 주상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여기에 불필요한 뼈가 하나 더 있는 질환이 부주상골이다. 보통 4~12% 정도가 선천적으로 부주상골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다 무리한 운동이나 외상 등으로 통증이 생긴 후 병원을 찾는다. 즉 부주상골 자체는 선천적인 것이지만 부주상골 증후군은 부주상골에 통증이 생기는 후천적인 질환이다.

부주상골은 아동기나 성인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아동기에서는 대개 부주상골이 신발에 눌리면서 압박에 의한 증상이 나타난다. 자극이 지속적으로 발목에 가해질 경우 부주상골이 제 위치에서 이탈하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발바닥 모양의 아치형태도 무너져 평발로 변할 수 있다. 성인은 대개 발이 비틀리는 손상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발등 내측 돌출부의 압통이 대표적이다. 손상에 의한 증상은 많이 걷고, 많이 일해서 발생하는 과사용 증후군, 외상에 의한 손상, 후경골건이 주상골 부착 부위에서 부분 파열된 경우 등이 있다.

보존치료 우선, 다리 들어 올리지 못할 때 수술 고려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보행 또는 서 있는 자세 후 증상이 발생하고 휴식시 호전된다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많은 증상의 호전을 보인다. 다리를 들어 올리지 못하거나 힘들어 할 때 수술을 고려하는데, 수술 후 종종 수술 부위에 만성적 통증이나 근력 감소 등의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증상이 심한 환자들이 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뒤꿈치가 몸 중심축의 바깥쪽으로 꺾이거나 체중이 많이 나갈 경우 후경골건이 부주상골을 끌어당겨 연골 결합부에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처음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후경골건이 끌어당기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아치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보존적 치료의 원칙이다. 그리고 발에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이 좋다. 주로 석고고정, 보조기, 깔창 등을 사용하며 이러한 보조기구들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 수술을 시행한다. 부주상골의 크기가 작은 경우는 후경골근건 내의 뼈만 제거하면 되고, 부주상골의 크기가 큰 경우는 부주상골을 제거한 뒤 후경골근건을 다시 주상골에 연결하는 수술을 하게 된다. 만약 주변 인대까지 손상부위가 크다면 새로운 인대로 이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주상골의 연골 결합부를 제거한 후 주상골에 나사못을 이용해 견고하게 고정, 골유합을 유도하는 수술 방법도 있다. 수술 후에는 6주간 깁스가 필요하며, 건이식술을 시행한 경우는 10주 이상 석고 깁스를 해야 한다.

기 고

4대 사회악 근절 활동! Never Stop!

김승현
홍성경찰서 경무계 경위

국민행복의 요건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국민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구축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선정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도 추진본부를 설치하는 등 국민 행복시대 추구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국정운영 방침에 발맞춰 성폭력 특별수사대, 성폭력 신상대상자 전담경찰관,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기관을 비롯한 각종 보호 단체와 다각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홍성지역의 5대 범죄 발생도 전년대비 12% 감소하는 부수적인 성과가 나타났고 치안활동의 여러 지표 결과에서도 전년에 비해 높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일곤 사건, 인천어린이집 폭행사건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아직도 여성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살인, 성폭력, 아동학대 등 강력범죄는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 활동은 내년이면 4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이제는 4대 사회악 척결 추진 4년차를 앞두고 추진 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행착오를 바로잡아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원천적인 치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4대 사회악 척결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경찰은 내년에도 4대 사회악 근절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작은 관심이 우리 경찰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바란다.

시의 향기

이채 作

우리라는 이름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과 내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만날 때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고
또한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세상은 꽃이 되고 별이 되고
사랑과 사랑이 만날 때
우리는 노래가 되고 시가 됩니다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아늑한 날
당신과 내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을 들으며 서로를 위로할 때
어제의 고달픔은 잊혀지고
내일의 염려는 덜어질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타인으로 점점 멀어져가는
무관심의 벽이 서글프고
기슴보다 머리로 살아가는
약삭빠른 세상인심이 안타까워도
우리라는 이름,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내게 기쁨의 물결로 파도 칩니다

꽃은 계절이 오면 어김없이 피어도
우리의 삶은 늘 꽃처럼 필 수는 없는 것
마음은 봄이라도 현실이 춥기만 할 때
멀쩡하던 하늘의 비와
예고 없는 이 땅의 바람으로
오늘의 삶이 슬픔과 괴로움에 빠질 때
우리라는 이름,
따뜻한 그 이름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 설

선거구획정, 조속히 타결해야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이 계속해서 난항을 거듭하며 지지부진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1/2의 범위 안에서 조정되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해당지역의 신인 정치지망생들의 등록 등 거취가 불안하고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자 접수가 시작되어 본격 20대 총선이 사실상 시작되면 정친신인들은 자신들을 알릴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에게 정치적 혼란과 피해를 안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여야는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무조건 만나서 철야 협상을 통해서라도 선거구획정에 대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책무이며 직무유기를 면하는 지름길이다.

여야 선거구획정에 대한 협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정시한을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욱이 여야는 지금까지 1년간 뭐하고서 막판에서야 선거구획정 합의에 나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직무유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선거구획정위가 가동됐지만 별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나버렸다. 당의 입김이 작용하는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탐색만 하다가 세월만 보낸 것이다. 여야 대표도 수차례나 만남을 가졌지만 매번 자기주장만 되풀이하고 성과 없이 해어지면 모든 책임을 여당은 야당에게, 야당은 여당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전만 이어졌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은 무섭지 않고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국민을 향해 갑 질을 일삼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6일 협상을 통해, 내년 4 · 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수차례 조율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날 여야의 2+2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20분 만에 결렬됐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놓고 대립하다가 이견이 노출되자, 새정치민주연합측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농어촌지역을 줄이는 방안을 최소화하거나 안되면 현행방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강조하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서로가 당리당략의 입장만을 강조하면서 평행선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선진화법의 제동에 걸려서 과반수를 획득하고도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법과 경제살리기 관련법을 가지고도 상당기간을 야당에게 끌려다니며 끼워 팔기 협상에 응하는 수모를 되풀이했다. 야권 등 일각에서는 통 큰 결정을 하라고 요구하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단 1석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만나 '지역구수 일부 확대와 비례대표 일부 축소'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이를 보완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연동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불과 20여분 만에 성과 없이 회동을 끝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일 회동에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수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한 입장이 달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새누리당 측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중재안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지역구-비례대표 연동제'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지역구를 7석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는 안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또 만약 지역구 증원에 합의해줄 수 없다면 현행 비율(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측은 "새누리당이 비례대표제 취지를 구현할 대안을 만들어오지 않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협상 시한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로 정한 상태이지만, 이날 회동에선 다음 회동날짜조차 기약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특히 양측 모두 현재로서는 기존 입장에서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15일로 예정된 정개특위 활동 시한과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 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병석 정개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연동제는 현재의 권력구조와 맞지 않는 만큼 받을 수 없으니 새로운 제안도 하지 않겠다. 현행대로 선거구를 획정하자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역구 숫자가 변화하는 만큼 비례대표 숫자를 줄여 조정하자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여당에서 변화된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만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새누리당이 자기들 안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은 여당의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당리당략에 의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0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1년이 넘도록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를 불과 12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비례성을 보안하라는 야당의 주장이나 비례대표를 줄이고 대신 줄어드는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만 되풀이하는 새누리당이나 여야 모두가 시간끌기를 하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제 1주일 후면 20대 총선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연말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기존 예비후보 등록자의 법적 자격이 상실되는 등 대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혼란의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에게는 어느 후보가 지역일꾼으로 합당한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꼼꼼히 살펴볼 권리가 있다. 선거구 획정은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일주일 후면 지역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정치 신인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새로운 목소리를 가진 정치 신인이 자신을 알릴 기회마저 상실하게 된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오늘의 소사

2009년	바그다드 폭탄테러 발생	1987년	대륙붕 8광구서 처음으로 가스층 발견
2008년	미국 거대 미디어그룹 트리뷴, 파산보호 신청	1987년	미-소, 중단거리 핵미사일(INF) 폐기협정에 서명
1991년	유라시3국 '독립국가공동체' 창설	1985년	유명우, WBA 주니어플라이급 세계챔피언 획득
1991년	서울방송, 방송허가 취득	1983년	브라질, 한국인 불법체류 4,500명 영주권 주어
1990년	민주화 운동가 김병곤 사망	1982년	교통요금 인상
1989년	삼성전자 4M D램 반도체 해외 첫 출하	1981년	영산호 준공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 장	김성구	편집국장	한대수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산불조심

주최 | 대전투데이 | DTN

협찬 | 주식회사 대생 ENT Environment 대표이사 손순용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계룡시의회 |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 연기교육지원청 | 연기군산림조합 | 한국농어촌공사 대금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 광남토건